

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분석 및 주요 성과 연구

혁신, 상생,
협동, 호혜의
사회적경제

2014-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성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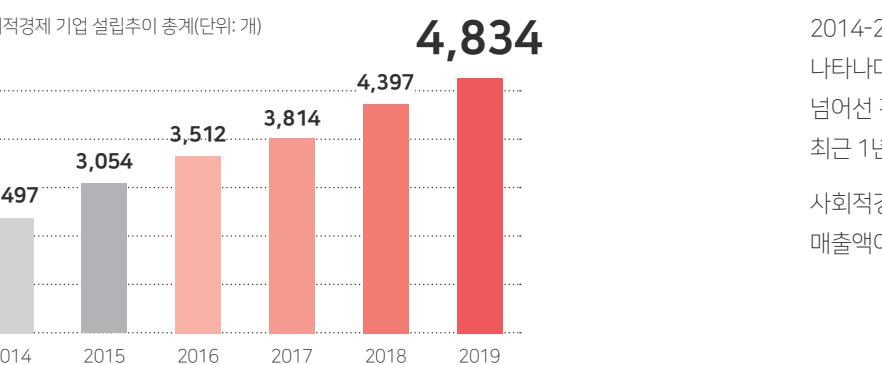
Contents

- 1장 서론
 - 12 분석 배경 및 목적
 - 14 지난 사회적경제 1.0의 흐름
- 2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18 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 일반현황
 - 28 2018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 분석
 - 40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성과
- 3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
 - 66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주요 성과
- 4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향후 과제
 - 84 주요 과제 및 비전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추이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수는 4,800여 개로 2018년 대비 400여 개가 순 증가하였으며, 2014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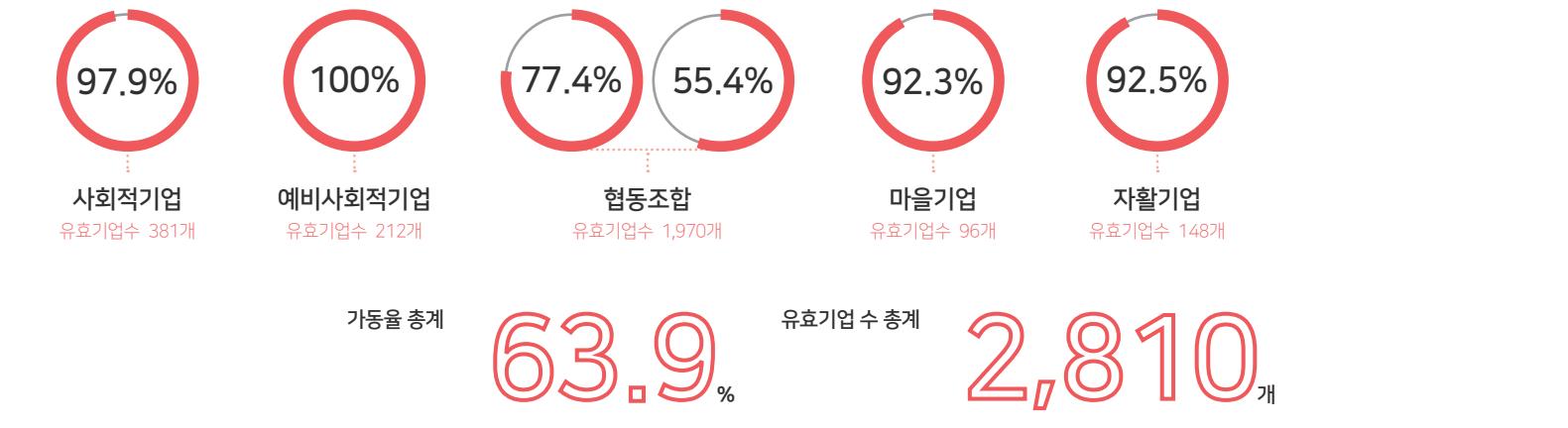
2019년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중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설립되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가동률이 97.9~100%로 높게 나타남.



2019년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추이



2018년 사회적경제 기업 유효기업 수 및 가동률



자료 (2017-2019 설립추이) 사회적기업: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기준 설립현황: 협동조합: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설립현황: 마을기업: 내부자료, 자활기업: 현황 보고서(2017, 2018), (2014-2016 설립추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 2016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 매출액

2014-2018년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 성과는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나며, 2018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간 총 매출액은 2조 8,47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2014년 대비 2.2배 성장하였으나 매출성장 폭이 최근 1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 매출액 대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이 약 65%, 협동조합의 매출액이 약 2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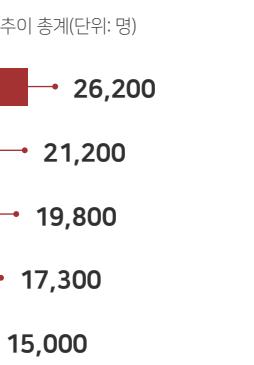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 일자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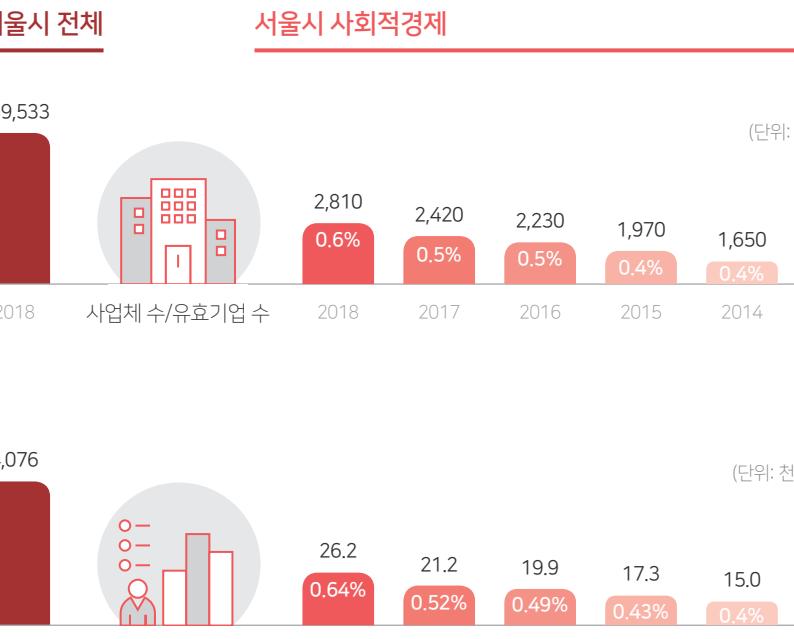
2014-2018년의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 일자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약 2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2014년 대비 2018년의 일자리 수는 1.6배 증가하였으며, 매출성장이 원화된 것에 비해 일자리 수의 상승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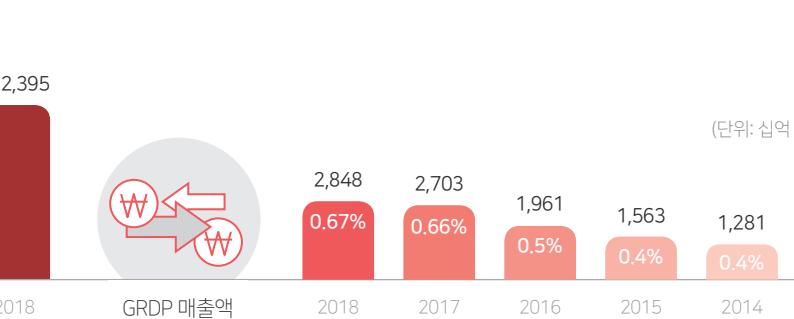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로는 협동조합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사회적기업 > 소비생협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2014-2018)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사회적경제 차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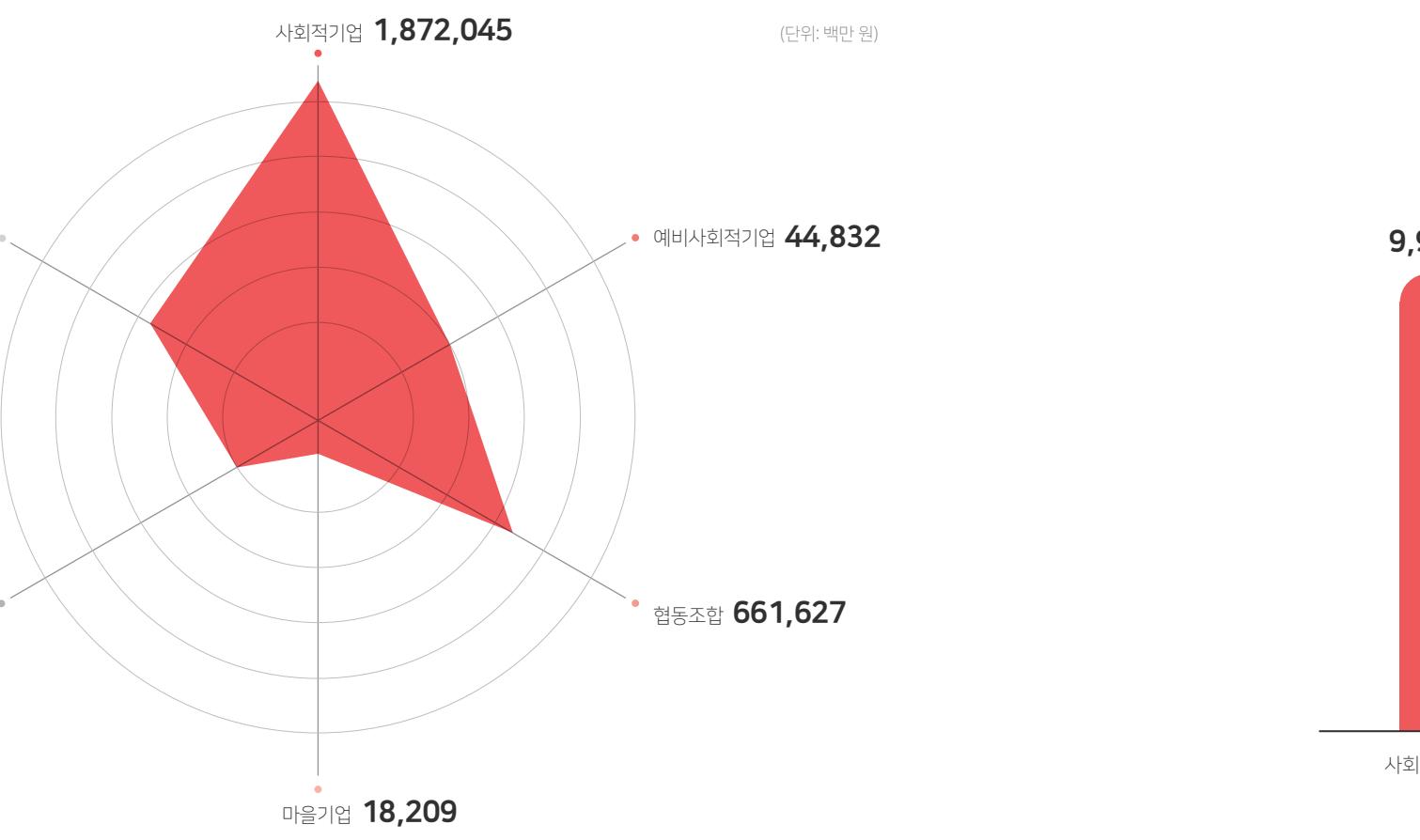


(단위: 개) (단위: 천명)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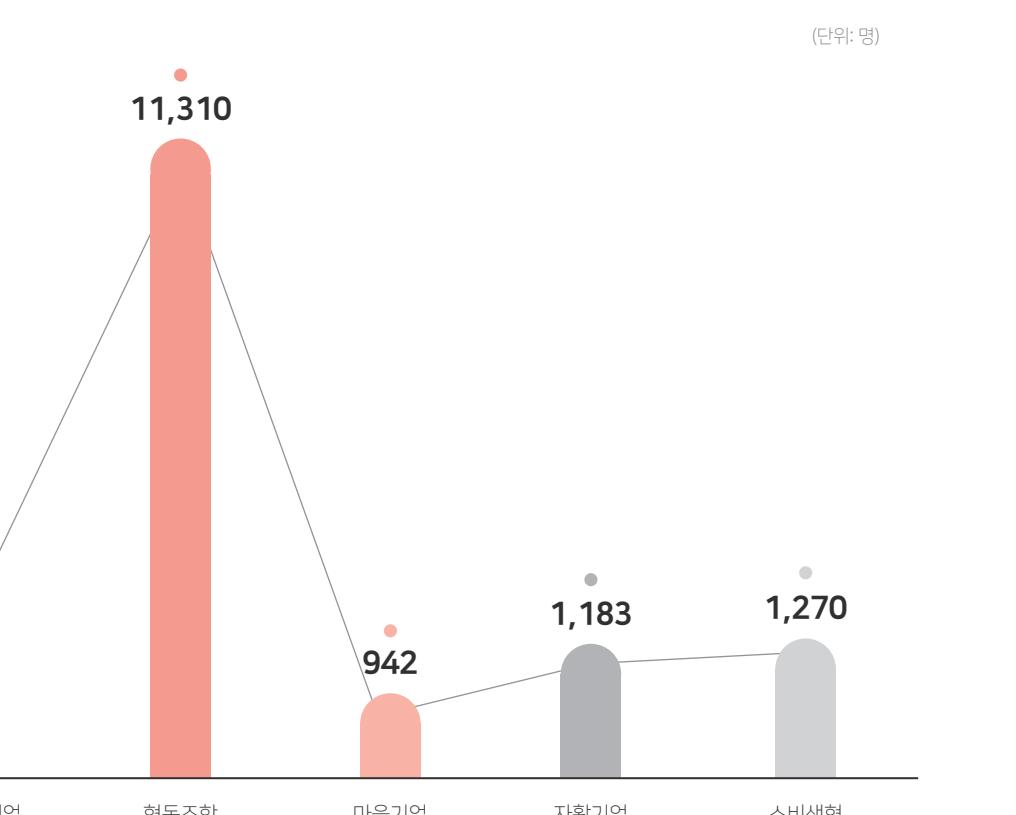


(단위: 개) (단위: 천명) (단위: 십억 원)

2018년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 매출액



2018년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 일자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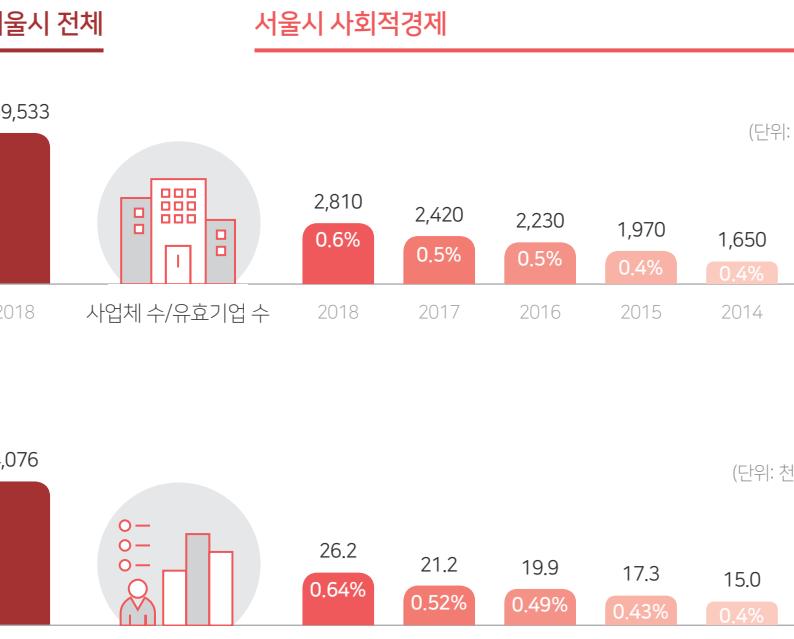
자료 (2017 일자리 수) 사회적기업 성과보고서, 협동조합 유효개수*평균일자리수추정, 마을기업 내부자료, 자활기업 현황 보고서(2017), 소비생협 내부자료, (2014-2016 매출액)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 2016 (2014-2016 일자리 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 2016

주요 경제지표 대비 사회적경제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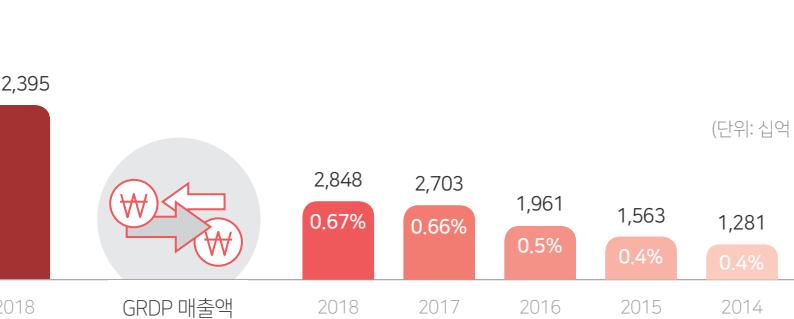
서울시에서 유효하게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서울시 전체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자영업자 및 공공기관 제외) 대비 0.6%를 차지하고 있음.

2018년 기준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고용 기여도는 0.64%,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 GRDP의 0.67%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4-2018)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사회적경제 차지 비중



(단위: 개) (단위: 천명) (단위: 십억 원)



(단위: 개) (단위: 천명) (단위: 십억 원)

자료 (서울지역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수(2018), 통계청 지역소득(2018))

혁신, 상생, 협동, 호혜의 사회적경제

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분석 및 주요 성과 연구

1장 서론

- 01 분석 배경 및 목적
- 02 지난 사회적경제 1.0의 흐름

분석 배경 및 목적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에 이어 신흥경제국과 아시아에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세계 경제는 장기침체의 기류로 덮여 있음.
국내 경제 역시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불황과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임.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된 배경은 글로벌 시장경제 확장 속에서
지역경제 위기 가중, 내수 활성화를 가능케 할 시민 생활경제의 중요성 부각,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급감으로 새로운 노동수요 창출 필요,
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 고령화 등으로 증가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지역커뮤니티 재건 필요, 시민사회의 창의성과 사회적 자본 증식 및
연계의 필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수요 증가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 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였고,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혁신적 해법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고 있음.

서울시는 그간 중요한 사회적경제 정책과 실험들을 이어왔고
그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으로 확산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옴.
이에, 다양한 사업으로 키워온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을 하나로 모으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양적증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매출액과 일자리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조직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서울시 사회적경제 1.0시대를 마감하고 2.0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 2.0 시대의 5개년 계획과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향상 및 주체 발굴을 위해 공동주택 프로젝트,
지역기반 통합돌봄서비스를 확산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판로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의 교류 확산을 위해
홍보, 해외연계지원,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옴.

본 보고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취합하여
서울시의 전체의 양적 성과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에 설립된 중간지원기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과를
요약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서울시의 각 정책 지원 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과에 대해 밝히고자 함.

끝으로 2019년 발표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개인-사회-미래 차원으로 접근한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액션플랜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지난 사회적경제

1.0의 흐름

정책환경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부각

- 국내 경제성장률은 저성장기(연평균 2%대)에 진입하였고,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필요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

- 투입된 지원금 대비 최소 12.9배에서 최대 29.5배의 사회가치 창출
- 사회적경제기업이 1개 증가할 때 주민행복도 0.033(약 2만 원) 증가(서울연구원, 2016)

사회적경제 3법 입법추진 등 사회가치에 대한 논의 확산과 더불어

소셜벤처, 민간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주체 증가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등 입법 추진과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측정·평가·보상에 대한 대응 필요
-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소셜벤처가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셜벤처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지원기관 및 투자자 또한 증가 추세

'12년 이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경제의 자조기반은 아직 미흡

- '12년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지난 6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양적·질적('12년 대비 기업 5배, 매출 4배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지도와 체감도가 여전히 저조하여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육성 필요

서울시 사회적경제 1.0 주요 성과 (2012~2018)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 '12.4월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계기로 개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자생력 제고 및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
- ※ 생태계 조성: 중간지원체계 구축, 교육 등 인재양성, 경영 및 판로지원, 금융 지원 등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부문별 협동기반 구축
 - 23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지원센터 설립, 15개 사회적경제 협업단지 조성, 지역특성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특구 12개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부문·업종·지역단위 협동화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양적 확대 및 질적 성장

- '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4천여 개로 지난 6년간 5배 이상 증가
- 매출액 및 고용도 지난 6년간 4배 성장시 지원대비 창출된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는 12.9배 성장

기업 수 '12년 819개 ▶ '18년 말 기준 **4,397개**

총 매출액 '12년 6,890억 원 ▶ '18년 말 기준 **2조 8,400억 원**

고용 인원 '12년 10,400명 ▶ '18년 말 기준 **26,200명**

사회투자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선도적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조성 ('18년 조성규모: 841억 원)
-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으로 사회가치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모델 도입
- '16.4월 제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출범: 민간투자 11억 원 유치(PPL 등)
- '16.11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 판로확대 주력

- 공공구매 시장 확대, 책임조달 실현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 '12년 500억 원 ▶ '16년 856억 원 ▶ '17년 1,173억 원 ▶ '18년 **1,369억 원**
- 사회적경제 장터, 온라인쇼핑몰(497개 기업, 6천여개 제품) 운영 등 민간 판로지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기반 마련

- '13.3월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 '14.3월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4.5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민관 거버넌스 정책기획 및 실행체계 구축 → 모델 타시·도 확산

-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한 기획·예산편성, 평가과정 등 전반 공동수립(월 1회)
- '11년 말부터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민간 지원조직간 연대 및 서울시 행정과의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 온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
- 국내외 276개(국내 210, 해외 66) 도시, 5천여 명이 서울 사례 벤치마킹 위해 방문
- '14년 국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GSEF) 플랫폼 창설, 국제기구로 안착
 - GSEF 2018 총회에 84개 도시 1,700여 명 참가, 설립 3년 만에 회원 49개 유치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4년 이상 개최, 칼풀라니 아시아지부 유치 등 국제연대 확대

2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01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현황
- 02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성과분석
- 03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성과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현황

설립 유형별 일반현황

분석에 사용된 조사개요

- 2019년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현황은 각 부처의 인증 및 인가 현황 자료 중 서울시를 소재지로 하고 있는 기업 현황을 참고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업종을 추가 구분하였다.

<그림 2-1> 2019년 현황분석 이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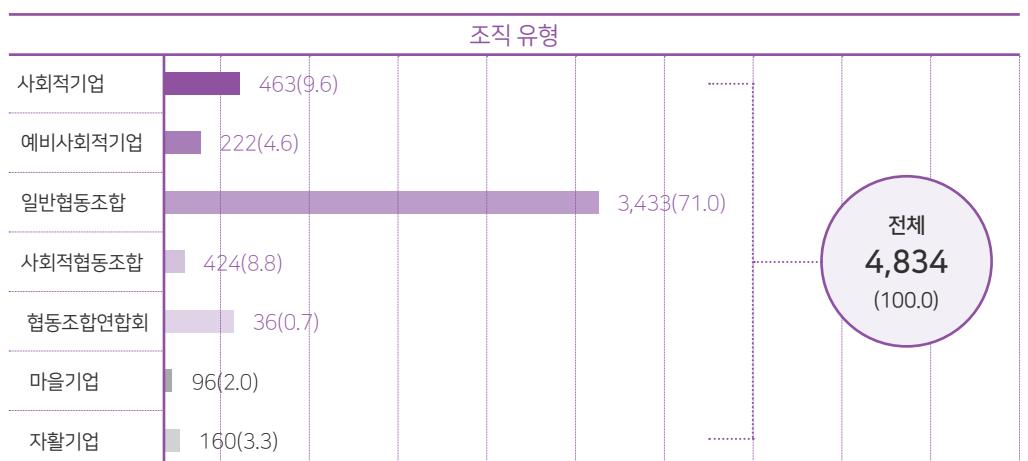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 설립현황

- 2019년 현황에 분석된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그림 2-2>와 같으며 총 4,834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분석 하였다.

<그림 2-2> 2019년 사회적경제 설립 현황

(단위: 개,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현황

-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9년 12월 기준 총 4,834개(100.0)이며, 일반협동조합 71.0% > 사회적기업 9.6% > 사회적협동조합 8.8% 순으로 설립됨.
- 서울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7.5%)이며, 금천구(16.0%)·용산구(14.8%)는 사회적 기업이, 강북구(14.7%)·노원구(13.1%)는 자활기업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설립됨.

<표 2-1> 2019년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직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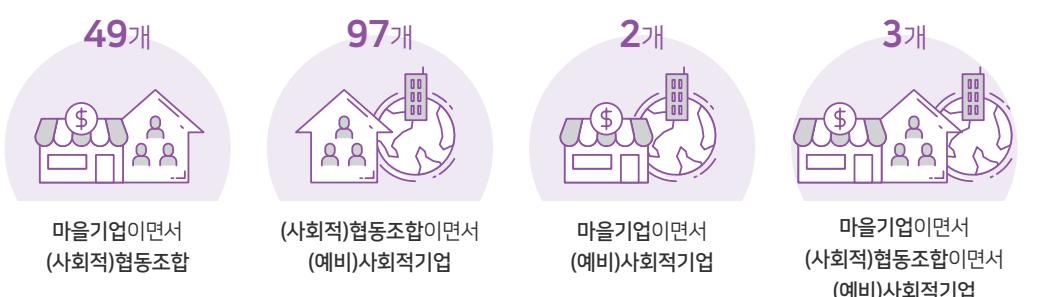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전체	조직 유형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전체	4,834(100)	463(9.6)	222(4.6)	3,433(71.0)	424(8.8)	36(0.7)	96(2.0)	160(3.3)
강남구	363(7.5)	17(4.7)	13(3.6)	308(84.8)	17(4.7)	3(0.8)	1(0.3)	4(1.1)
강동구	146(3.0)	9(6.2)	10(6.8)	110(75.3)	11(7.5)	0(0.0)	6(4.1)	0(0.0)
강북구	95(2.0)	7(7.4)	6(6.3)	55(57.9)	9(9.5)	0(0.0)	4(4.2)	14(14.7)
강서구	171(3.5)	16(9.4)	6(3.5)	116(67.8)	11(6.4)	0(0.0)	4(2.3)	18(10.5)
관악구	180(3.7)	15(8.3)	3(1.7)	133(73.9)	13(7.2)	1(0.6)	4(2.2)	11(6.1)
광진구	164(3.4)	11(6.7)	5(3.0)	112(68.3)	20(12.2)	1(0.6)	5(3.0)	10(6.1)
구로구	221(4.6)	20(9.0)	7(3.2)	149(67.4)	21(9.5)	1(0.5)	8(3.6)	15(6.8)
금천구	156(3.2)	25(16.0)	5(3.2)	105(67.3)	9(5.8)	1(0.6)	4(2.6)	7(4.5)
노원구	168(3.5)	10(6.0)	7(4.2)	105(62.5)	22(13.1)	0(0.0)	2(1.2)	22(13.1)
도봉구	99(2.0)	12(12.1)	4(4.0)	63(63.6)	12(12.1)	0(0.0)	4(4.0)	4(4.0)
동대문	133(2.8)	9(6.8)	8(6.0)	94(70.7)	16(12.0)	0(0.0)	3(2.3)	3(2.3)
동작구	123(2.5)	10(8.1)	7(5.7)	87(70.7)	11(8.9)	1(0.8)	4(3.3)	3(2.4)
마포구	323(6.7)	34(10.5)	24(7.4)	220(68.1)	30(9.3)	3(0.9)	7(2.2)	5(1.5)
서대문	192(4.0)	14(7.3)	8(4.2)	141(73.4)	15(7.8)	3(1.6)	4(2.1)	7(3.6)
서초구	298(6.2)	12(4.0)	8(2.7)	248(83.2)	25(8.4)	3(1.0)	2(0.7)	0(0.0)
성동구	199(4.1)	24(12.1)	17(8.5)	130(65.3)	22(11.1)	0(0.0)	3(1.5)	3(1.5)
성북구	184(3.8)	21(11.4)	19(10.3)	107(58.2)	22(12.0)	1(0.5)	5(2.7)	9(4.9)
송파구	232(4.8)	17(7.3)	9(3.9)	173(74.6)	21(9.1)	4(1.7)	6(2.6)	2(0.9)
양천구	101(2.1)	10(9.9)	8(7.9)	72(71.3)	6(5.9)	0(0.0)	1(1.0)	4(4.0)
영등포	293(6.1)	39(13.3)	10(3.4)	208(71.0)	28(9.6)	4(1.4)	2(0.7)	2(0.7)
용산구	142(2.9)	21(14.8)	4(2.8)	100(70.4)	8(5.6)	0(0.0)	6(4.2)	3(2.1)
은평구	279(5.8)	40(14.3)	18(6.5)	179(64.2)	25(9.0)	6(2.2)	7(2.5)	4(1.4)
종로구	266(5.5)	29(10.9)	6(2.3)	193(72.6)	30(11.3)	1(0.4)	2(0.8)	5(1.9)
중구	215(4.4)	29(13.5)	9(4.2)	157(73.0)	16(7.4)	2(0.9)	1(0.5)	1(0.5)
중랑구	91(1.9)	12(13.2)	1(1.1)	68(74.7)	4(4.4)	1(1.1)	1(1.1)	4(4.4)

중복 지정 현황

-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 조직 중 중복 지정 현황은 <그림 2-3>와 같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동시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조직은 3개로 나타났음.
- 2019년 사회적경제 조직 4,834개 중 151개는 2개 이상의 인증유형을 받았으며, 마을기업의 56.2%는 다양한 경로로 사회적경제 유형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조직은 97개로 가장 많았으며, 협동조합이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조직은 49개로 나타남.

<그림 2-3> 2019년 사회적경제 조직 중복지정 현황



폐업신고 현황

- 2017년 이전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 2019년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폐업한 곳은 총 298개이며, 일반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폐업신고를 하였음.
- 업종별로는 '(P)교육서비스업'(23.9%)에서 폐업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G)도매 및 소매업'(17.4%) >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7%) 순으로 폐업신고가 나타남.

<표 2-2> 2019년 사회적경제 기업 폐업신고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합계	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A)농업, 임업 및 어업	8(2.7)	1(2.9)	6(2.4)	1(5.9)
(C)제조업	24(6.4)	7(20.6)	16(6.5)	1(5.9)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2.7)	1(2.9)	7(2.8)	-
(F)건설업	11(4.2)	-	11(4.5)	-
(G)도매 및 소매업	47(17.4)	1(2.9)	45(18.2)	1(5.9)
(H)운수업	9(3.4)	-	9(3.6)	-
(I)숙박 및 음식점업	8(2.7)	1(2.9)	7(2.8)	-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4.5)	1(2.9)	12(4.9)	-
(K)금융 및 보험업	1(0)	1(2.9)	-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5(1.9)	-	5(2)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5.7)	1(2.9)	15(6.1)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4.5)	2(5.9)	9(3.6)	3(17.6)
(P)교육 서비스업	69(23.9)	6(17.6)	57(23.1)	6(35.3)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5.7)	4(11.8)	10(4)	5(29.4)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7(7.6)	7(20.6)	20(8.1)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6(5.4)	1(2.9)	15(6.1)	-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1.1)	(0)	3(1.2)	-
총합계	298(100.0)	34(11.4)	247(82.9)	17(5.7)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의 업종별 현황

-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에 따른 업종 현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여 <표 2-3>와 같으며, 전체 업종의 분포는 '(G)도매 및 소매업' 18.29% > '(P)교육 서비스업' 18.14% > '(C)제조업' 9.41%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 주 사업 업종은 '(C)제조업'(25.1%)이 타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4.7%), 사회적협동조합은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5.9%), 마을기업은 '(C)제조업'(25.0%), 자활기업은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6.47%)으로 나타남
-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G)도매 및 소매업'(3.8%)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활기업은 '(P)교육 서비스업'(5.0%)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2-3> 2019년 사회적경제 조직유형의 업종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조직 유형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마을 기업	자활 기업
	4,834(100.0)	463(9.6)	222(4.6)	3433(71.0)	424(8.8)	36(0.7)	96(2.0)	160(3.3)
(A)농업 등	105(2.2)	2(1.9)	0(0.0)	87(82.9)	12(11.4)	1(1.0)	2(1.9)	1(1.0)
(B)광업	2(0.0)	1(50.0)	0(0.0)	1(50.0)	0(0.0)	0(0.0)	0(0.0)	0(0.0)
(C)제조업	455(9.4)	116(25.5)	27(5.9)	262(57.6)	19(4.2)	3(0.7)	24(5.3)	4(0.9)
(D)전기 등 공급업	35(0.7)	0(0.0)	0(0.0)	32(91.4)	2(5.7)	1(2.9)	0(0.0)	0(0.0)
(E)하수 및 폐기물 처리	60(1.2)	6(10.0)	1(1.7)	47(78.3)	4(6.7)	0(0.0)	0(0.0)	2(3.3)
(F)건설업	151(3.1)	22(14.6)	7(4.6)	115(76.2)	6(4.0)	1(0.7)	0(0.0)	0(0.0)
(G)도매 및 소매업	884(18.3)	47(5.3)	13(1.5)	781(88.3)	16(1.8)	2(0.2)	10(1.1)	15(1.7)
(H)운수업	112(2.3)	6(5.4)	3(2.7)	71(63.4)	1(0.9)	3(2.7)	3(2.7)	25(22.3)
(I)숙박 및 음식점업	181(3.7)	10(5.5)	16(8.8)	107(59.1)	5(2.8)	0(0.0)	19(10.5)	24(13.3)
(J)출판, 영상 서비스업	287(5.9)	34(11.8)	24(8.4)	216(75.3)	10(3.5)	2(0.7)	1(0.3)	0(0.0)
(K)금융 및 보험업	3(0.1)	1(33.3)	2(66.7)	0(0.0)	0(0.0)	0(0.0)	0(0.0)	0(0.0)
(L)부동산업 및 임대업	103(2.1)	4(3.9)	3(2.9)	88(85.4)	8(7.8)	0(0.0)	0(0.0)	0(0.0)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6(5.7)	33(12.0)	32(11.6)	189(68.5)	15(5.4)	1(0.4)	2(0.7)	4(1.4)
(N)사업시설관리 서비스	249(5.2)	31(12.4)	3(1.2)	131(52.6)	33(13.3)	7(2.8)	3(1.2)	41(16.5)
(O)공공행정 사회보장	16(0.3)	0(0.0)	0(0.0)	14(87.5)	2(12.5)	0(0.0)	0(0.0)	0(0.0)
(P)교육 서비스업	877(18.1)	47(5.4)	36(4.1)	661(75.4)	110(12.5)	2(0.2)	13(1.5)	8(0.9)
(Q)보건, 복지 서비스	330(6.8)	36(10.9)	17(5.2)	148(44.8)	110(33.3)	3(0.9)	3(0.9)	13(3.9)
(R)예술, 스포츠 서비스	435(9.0)	62(14.3)	24(5.5)	299(68.7)	38(8.7)	1(0.2)	11(2.5)	0(0.0)
(S)단체, 개인 서비스업	234(4.8)	5(2.1)	14(6.0)	146(62.4)	32(13.7)	9(3.8)	5(2.1)	23(9.8)
(T)자가소비 생산활동	37(0.8)	0(0.0)	0(0.0)	36(97.3)	1(2.7)	0(0.0)	0(0.0)	0(0.0)
(U)국제 및 외국기관	2(0.0)	0(0.0)	0(0.0)	2(100.0)	0(0.0)	0(0.0)	0(0.0)	0(0.0)

주. 2018 표준산업구분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T)자가소비 생산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자치구별 업종 현황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직 업종현황은 <표 2-4>와 같으며, 각 자치구별로 다양한 업종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관악구에서는 '(G)도매 및 소매업(30.0%)'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성동구는 '(C)제조업'(24.6%), 성북구는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7.9%)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반면 강북구는 '(P)교육 서비스업'(9.5%)과 '(G)도매 및 소매업(9.5%)'이 상대적으로 적게 설립된 것을 볼 수 있음.

<표 2-4> 2019년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직 업종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업종											
		A 농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E 폐기물	F 건설	G 도소매	H 운수	I 숙박	J 출판	K 금융	
	4,834(100.0)	105(2.2)	2(0.0)	455(9.4)	35(0.7)	60(1.2)	151(3.1)	884(18.3)	112(2.3)	181(3.7)	287(5.9)	3(0.1)	
강남구	363(7.5)	7(1.9)	0(0.0)	10(2.8)	1(0.3)	1(0.3)	14(3.9)	89(24.5)	3(0.8)	5(1.4)	29(8.0)	0(0.0)	
강동구	146(3.0)	6(4.1)	0(0.0)	15(10.3)	3(2.1)	4(2.7)	10(6.8)	19(13.0)	5(3.4)	6(4.1)	9(6.2)	0(0.0)	
강북구	95(2.0)	4(4.2)	0(0.0)	10(10.5)	0(0.0)	4(4.2)	8(8.4)	9(9.5)	5(5.3)	7(7.4)	2(2.1)	0(0.0)	
강서구	171(3.5)	5(2.9)	0(0.0)	17(9.9)	4(2.3)	2(1.2)	3(1.8)	40(23.4)	9(5.3)	4(2.3)	7(4.1)	0(0.0)	
관악구	180(3.7)	8(4.4)	1(0.6)	14(7.8)	2(1.1)	3(1.7)	4(2.2)	54(30.0)	4(2.2)	5(2.8)	5(2.8)	0(0.0)	
광진구	164(3.4)	1(0.6)	0(0.0)	11(6.7)	0(0.0)	2(1.2)	3(1.8)	32(19.5)	5(3.0)	15(9.1)	7(4.3)	0(0.0)	
구로구	221(4.6)	7(3.2)	0(0.0)	15(6.8)	1(0.5)	0(0.0)	6(2.7)	46(20.8)	3(1.4)	13(5.9)	9(4.1)	0(0.0)	
금천구	156(3.2)	5(3.2)	0(0.0)	25(16.0)	2(1.3)	0(0.0)	4(2.6)	26(16.7)	4(2.6)	2(1.3)	13(8.3)	0(0.0)	
노원구	168(3.5)	5(3.0)	0(0.0)	18(10.7)	2(1.2)	5(3.0)	7(4.2)	21(12.5)	10(6.0)	5(3.0)	8(4.8)	0(0.0)	
도봉구	99(2.0)	5(5.1)	0(0.0)	14(14.1)	2(2.0)	2(2.0)	2(2.0)	12(12.1)	5(5.1)	7(7.1)	5(5.1)	0(0.0)	
동대문	133(2.8)	1(0.8)	0(0.0)	13(9.8)	0(0.0)	2(1.5)	4(3.0)	24(18.0)	1(0.8)	5(3.8)	10(7.5)	0(0.0)	
동작구	123(2.5)	1(0.8)	0(0.0)	6(4.9)	4(3.3)	5(4.1)	3(2.4)	24(19.5)	2(1.6)	8(6.5)	3(2.4)	0(0.0)	
마포구	323(6.7)	1(0.3)	0(0.0)	31(9.6)	1(0.3)	4(1.2)	5(1.5)	48(14.9)	6(1.9)	17(5.3)	26(8.0)	0(0.0)	
서대문	192(4.0)	3(1.6)	0(0.0)	11(5.7)	3(1.6)	0(0.0)	6(3.1)	33(17.2)	5(2.6)	14(7.3)	4(2.1)	0(0.0)	
서초구	298(6.2)	11(3.7)	1(0.3)	13(4.4)	0(0.0)	3(1.0)	6(2.0)	64(21.5)	5(1.7)	2(0.7)	12(4.0)	0(0.0)	
성동구	199(4.1)	2(1.0)	0(0.0)	49(24.6)	0(0.0)	2(1.0)	5(2.5)	23(11.6)	7(3.5)	10(5.0)	18(9.0)	0(0.0)	
성북구	184(3.8)	1(0.5)	0(0.0)	22(12.0)	0(0.0)	2(1.1)	4(2.2)	26(14.1)	2(1.1)	5(2.7)	6(3.3)	0(0.0)	
송파구	232(4.8)	11(4.7)	0(0.0)	18(7.8)	0(0.0)	1(0.4)	6(2.6)	61(26.3)	7(3.0)	7(3.0)	12(5.2)	0(0.0)	
양천구	101(2.1)	4(4.0)	0(0.0)	7(6.9)	1(1.0)	0(0.0)	7(6.9)	19(18.8)	3(3.0)	4(4.0)	5(5.0)	0(0.0)	
영등포	293(6.1)	2(0.7)	0(0.0)	28(9.6)	0(0.0)	3(1.0)	13(4.4)	39(13.3)	8(2.7)	2(0.7)	17(5.8)	0(0.0)	
용산구	142(2.9)	2(1.4)	0(0.0)	18(12.7)	1(0.7)	1(0.7)	5(3.5)	21(14.8)	3(2.1)	10(7.0)	11(7.7)	0(0.0)	
은평구	279(5.8)	7(2.5)	0(0.0)	27(9.7)	6(2.2)	5(1.8)	12(4.3)	40(14.3)	2(0.7)	6(2.2)	29(10.4)	2(0.7)	
종로구	266(5.5)	2(0.8)	0(0.0)	12(4.5)	2(0.8)	7(2.6)	8(3.0)	49(18.4)	2(0.8)	9(3.4)	20(7.5)	0(0.0)	
종구	215(4.4)	3(1.4)	0(0.0)	38(17.7)	0(0.0)	0(0.0)	5(2.3)	47(21.9)	6(2.8)	7(3.3)	18(8.4)	1(0.5)	
중랑구	91(1.9)	1(1.1)	0(0.0)	13(14.3)	0(0.0)	2(2.2)	1(1.1)	18(19.8)	0(0.0)	6(6.6)	2(2.2)	0(0.0)	

- 표준산업구분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하수, 폐기 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구분	전체	업종											
		L 부동산	M 전문기술	N 시설관리	O 공공행정	P 교육	Q 보건	R 예술	S 단체	T 자가소비	U 국제		
	4,834(100.0)	103(2.1)	276(5.7)	249(5.2)	16(0.3)	877(18.1)	330(6.8)	435(9.0)	234(4.8)	37(0.8)	2(0.0)		
강남구	363(7.5)	9(2.5)	35(9.6)	13(3.6)	0(0.0)	54(14.9)	21(5.8)	32(8.8)	39(10.7)	1(0.3)	0(0.0)		
강동구	146(3.0)	1(0.7)	4(2.7)	2(1.4)	1(0.7)	34(23.3)	14(9.6)	12(8.2)	1(0.7)	0(0.0)	0(0.0)		
강북구	95(2.0)	0(0.0)	3(3.2)	9(9.5)	0(0.0)	9(9.5)	10(10.5)	10(10.5)	4(4.2)	1(1.1)	0(0.0)		
강서구	171(3.5)	1(0.6)	8(4.7)	10(5.8)	0(0.0)	26(15.2)	12(7.0)	7(4.1)	11(6.4)	5(2.9)	0(0.0)		
관악구	180(3.7)	3(1.7)	10(5.6)	4(2.2)	0(0.0)	29(16.1)	15(8.3)	13(7.2)	6(3.3)	0(0.0)	0(0.0)		
광진구	164(3.4)	3(1.8)	3(1.8)	6(3.7)	1(0.6)	36(22.0)	13(7.9)	14(8.5)	10(6.1)	2(1.2)	0(0.0)		
구로구	221(4.6)	3(1.4)	12(5.4)	14(6.3)	0(0.0)	49(22.2)	17(7.7)	10(4.5)	13(5.9)	2(0.9)	1(0.5)		
금천구	156(3.2)	3(1.9)	14(9.0)	9(5.8)	0(0.0)	30(19.2)	3(1.9)	11(7.1)	4(2.6)	0(0.0)	1(0.6)		
노원구	168(3.5)	3(1.8)	9(5.4)	14(8.3)	0(0.0)	30(17.9)	18(10.7)	8(4.8)	4(2.4)	1(0.6)	0(0.0)		
도봉구	99(2.0)	0(0.0)	7(7.1)	4(4.0)	0(0.0)	14(14.1)	5(5.1)	6(6.1)	7(7.1)	2(2.0)	0(0.0)		
동대문	133(2.8)	3(2.3)	5(3.8)	18(13.5)	0(0.0)	18(13.5)	10(7.5)	12(9.0)	7(5.3)	0(0.0)	0(0.0)		
동작구	123(2.5)	4(3.3)	6(4.9)	7(5.7)	0(0.0)	22(17.9)	12(9.8)	11(8.9)	5(4.1)	0(0.0)	0(0.0)		
마포구	323(6.7)	8(2.5)	12(3.7)	20(6.2)	0(0.0)	65(20.1)	26(8.0)	41(12.7)	9(2.8)	3(0.9)	0(0.0)		
서대문	192(4.0)	7(3.6)	8(4.2)	8(4.2)	0(0.0)	40(20.8)	15(7.8)	23(12.0)	12(6.3)	0(0.0)	0(0.0)		
서초구	298(6.2)	11(3.7)	34(11.4)	10(3.4)	1(0.3)	67(22.5)	13(4.4)	37(12.4)	7(2.3)	1(0.3)	0(0.0)		
성동구	199(4.1)	4(2.0)	12(6.0)	5(2.5)	0(0.0)	27(13.6)	9(4.5)	18(9.0)	6(3.0)	2(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 사회서비스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예술(15.6%) > 교육(7.8%) > 사회복지(5.8%) 순으로 나타남.
- 종로구(34.5%)와 성북구(33.3%)는 문화예술 분야를, 노원구(30.0%)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음.
- 기타에 포함된 부분은 제조업을 비롯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주거서비스도 포함되어 사회서비스 종류의 구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표 2-5> 2019년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간병가사	고용	관광운동	교육	문화예술	문화재	보건
	463(100.0)	13(2.8)	4(0.9)	9(1.9)	36(7.8)	72(15.6)	2(0.4)	8(1.7)
강남구	17(3.7)	1(5.9)	1(5.9)	1(5.9)	0(0.0)	3(17.6)	0(0.0)	0(0.0)
강동구	9(1.9)	0(0.0)	0(0.0)	0(0.0)	0(0.0)	3(33.3)	0(0.0)	0(0.0)
강북구	7(1.5)	1(14.3)	0(0.0)	0(0.0)	0(0.0)	1(14.3)	0(0.0)	0(0.0)
강서구	16(3.5)	0(0.0)	0(0.0)	0(0.0)	0(0.0)	1(6.3)	0(0.0)	0(0.0)
관악구	15(3.2)	0(0.0)	0(0.0)	1(6.7)	0(0.0)	2(13.3)	0(0.0)	0(0.0)
광진구	11(2.4)	1(9.1)	0(0.0)	1(9.1)	0(0.0)	2(18.2)	0(0.0)	0(0.0)
구로구	20(4.3)	1(5.0)	2(10.0)	0(0.0)	3(15.0)	1(5.0)	0(0.0)	2(10.0)
금천구	25(5.4)	0(0.0)	0(0.0)	0(0.0)	0(0.0)	5(20.0)	0(0.0)	0(0.0)
노원구	10(2.2)	1(10.0)	0(0.0)	0(0.0)	0(0.0)	1(10.0)	0(0.0)	0(0.0)
도봉구	12(2.6)	0(0.0)	0(0.0)	1(8.3)	0(0.0)	0(0.0)	0(0.0)	0(0.0)
동대문	9(1.9)	1(11.1)	0(0.0)	0(0.0)	0(0.0)	0(0.0)	0(0.0)	0(0.0)
동작구	10(2.2)	1(10.0)	0(0.0)	0(0.0)	3(30.0)	2(20.0)	1(11.1)	0(0.0)
마포구	34(7.3)	2(5.9)	0(0.0)	0(0.0)	1(2.9)	8(23.5)	0(0.0)	1(2.9)
서대문	14(3.0)	0(0.0)	0(0.0)	1(7.1)	0(0.0)	3(21.4)	0(0.0)	0(0.0)
서초구	12(2.6)	1(4.2)	0(0.0)	0(0.0)	1(8.3)	2(16.7)	0(0.0)	0(0.0)
성동구	24(5.2)	0(0.0)	0(0.0)	1(4.2)	1(4.2)	4(16.7)	0(0.0)	0(0.0)
성북구	21(4.5)	0(0.0)	1(4.8)	0(0.0)	3(14.3)	7(33.3)	0(0.0)	0(0.0)
송파구	17(3.7)	0(0.0)	0(0.0)	0(0.0)	3(17.6)	1(5.9)	0(0.0)	0(0.0)
양천구	10(2.2)	1(10.0)	0(0.0)	0(0.0)	2(20.0)	0(0.0)	0(0.0)	0(0.0)
영등포	39(8.4)	1(2.6)	0(0.0)	0(0.0)	3(7.7)	7(17.9)	0(0.0)	2(5.1)
용산구	21(4.5)	1(4.8)	0(0.0)	0(0.0)	6(28.6)	4(19.0)	0(0.0)	0(0.0)
은평구	40(8.6)	0(0.0)	0(0.0)	1(2.5)	6(15.0)	5(12.5)	0(0.0)	2(5.0)
종로구	29(6.3)	0(0.0)	0(0.0)	2(6.9)	3(10.3)	10(34.5)	1(3.4)	0(0.0)
종구	29(6.3)	0(0.0)	0(0.0)	0(0.0)	1(3.4)	0(0.0)	0(0.0)	1(3.4)
중랑구	12(2.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구분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유형					
		보육	사회복지	산림보전	청소	환경	기타
	463(100.0)	3(0.6)	27(5.8)	3(0.6)	16(3.5)	22(4.8)	248(53.6)
강남구	17(3.7)	0(0.0)	2(11.8)	0(0.0)	1(5.9)	0(0.0)	8(47.1)
강동구	9(1.9)	0(0.0)	0(0.0)	0(0.0)	1(11.1)	0(0.0)	5(55.6)
강북구	7(1.5)	0(0.0)	0(0.0)	0(0.0)	1(14.3)	0(0.0)	4(57.1)
강서구	16(3.5)	1(6.3)	3(18.8)	0(0.0)	1(6.3)	1(6.3)	9(56.3)
관악구	15(3.2)	0(0.0)	4(26.7)	0(0.0)	1(6.7)	2(13.3)	5(33.3)
광진구	11(2.4)	0(0.0)	1(9.1)	0(0.0)	0(0.0)	1(9.1)	5(45.5)
구로구	20(4.3)	2(10.0)	1(5.0)	0(0.0)	0(0.0)	0(0.0)	10(50.0)
금천구	25(5.4)	0(0.0)	2(8.0)	0(0.0)	0(0.0)	0(0.0)	18(72.0)
노원구	10(2.2)	0(0.0)	3(30.0)	0(0.0)	0(0.0)	1(10.0)	4(40.0)
도봉구	12(2.6)	0(0.0)	0(0.0)	0(0.0)	0(0.0)	1(8.3)	0(0.0)
동대문	9(1.9)	0(0.0)	0(0.0)	0(0.0)	0(0.0)	1(11.1)	6(66.7)
동작구	10(2.2)	0(0.0)	1(10.0)	0(0.0)	0(0.0)	0(0.0)	3(30.0)
마포구	34(7.3)	1(2.9)	0(0.0)	0(0.0)	2(5.9)	2(5.9)	17(50.0)
서대문	14(3.0)	0(0.0)	0(0.0)	0(0.0)	0(0.0)	0(0.0)	10(71.4)
서초구	12(2.6)	0(0.0)	2(16.7)	1(8.3)	0(0.0)	0(0.0)	6(50.0)
성동구	24(5.2)	0(0.0)	1(4.2)	0(0.0)	0(0.0)	2(8.3)	14(58.3)
성북구	21(4.5)	0(0.0)	0(0.0)	0(0.0)	0(0.0)	0(0.0)	2(9.5)
송파구	17(3.7)	0(0.0)	1(5.9)	0(0.0)	1(5.9)	2(11.8)	9(52.9)
양천구	10(2.2)	0(0.0)	0(0.0)	0(0.0)	2(20.0)	1(10.0)	4(40.0)
영등포	39(8.4)	0(0.0)	0(0.0)	0(0.0)	2(5.1)	2(5.1)	22(56.4)
용산구	21(4.5)	0(0.0)	0(0.0)	1(4.8)	0(0.0)	1(4.8)	8(38.1)
은평구	40(8.6)	0(0.0)	2(5.0)	1(2.5)	2(5.0)	2(5.0)	19(47.5)
종로구	29(6.3)	0(0.0)	1(3.4)	0(0.0)	0(0.0)	1(3.4)	11(37.9)
종구	29(6.3)	1(3.4)	1(3.4)	0(0.0)	0(0.0)	1(3.4)	24(82.8)
중랑구	12(2.6)	0(0.0)	2(16.7)	0(0.0)	1(8.3)	0(0.0)	9(75.0)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2019년 12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463개이며 일자리제공형(52.5%) > 창의·혁신형(30.7%) > 혼합형(7.3%) > 사회서비스제공형(6.5%) > 지역사회공헌형(3.0%) 순으로 나타남.
- 전국 분포는 일자리제공형(66.9%) > 창의혁신형(12.6%) > 혼합형(8.0%) > 지역사회공헌형(6.4%) > 사회서비스제공형(6.2%)순으로 나타나며 서울 분포와 일부차이가 있음.
- 강북구(100.0%), 종량구(100.0%), 강서구(93.8%)의 경우 대부분 일자리제공형으로 설립되었음.

<표 2-6> 2019년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혼합형
	463(100.0)	30(6.5)	243(52.5)	14(3.0)	142(30.7)	34(7.3)
강남구	17(3.7)	2(11.8)	8(47.1)	0(0.0)	4(23.5)	3(17.6)
강동구	19(1.9)	0(0.0)	4(44.4)	1(11.1)	4(44.4)	0(0.0)
강북구	7(1.5)	0(0.0)	7(100.0)	0(0.0)	0(0.0)	0(0.0)
강서구	16(3.5)	0(0.0)	15(93.8)	0(0.0)	1(6.3)	0(0.0)
관악구	15(3.2)	2(13.3)	7(46.7)	2(13.3)	2(13.3)	2(13.3)
광진구	11(2.4)	0(0.0)	4(36.4)	1(9.1)	3(27.3)	3(27.3)
구로구	20(4.3)	1(5.0)	13(65.0)	1(5.0)	4(20.0)	1(5.0)
금천구	25(5.4)	1(4.0)	18(72.0)	0(0.0)	6(24.0)	1(5.0)
노원구	10(2.2)	0(0.0)	6(60.0)	1(10.0)	1(10.0)	0(0.0)
도봉구	12(2.6)	1(8.3)	9(75.0)	1(8.3)	1(8.3)	2(20.0)
동대문	9(1.9)	1(11.1)	3(33.3)	1(11.1)	2(22.2)	0(0.0)
동작구	10(2.2)	3(30.0)	3(30.0)	0(0.0)	2(20.0)	2(22.2)
마포구	34(7.3)	1(2.9)	12(35.3)	1(2.9)	18(52.9)	2(5.9)
서대문	14(3.0)	0(0.0)	7(50.0)	0(0.0)	7(50.0)	0(0.0)
서초구	12(2.6)	1(8.3)	6(50.0)	0(0.0)	4(33.3)	1(8.3)
성동구	24(5.2)	1(4.2)	12(50.0)	0(0.0)	9(37.5)	2(8.3)
성북구	21(4.5)	1(4.8)	8(38.1)	0(0.0)	10(47.6)	2(9.5)
송파구	17(3.7)	4(23.5)	9(52.9)	0(0.0)	3(17.6)	1(5.9)
양천구	10(2.2)	0(0.0)	6(60.0)	0(0.0)	2(20.0)	2(20.0)
영등포	39(8.4)	4(10.3)	26(66.7)	0(0.0)	6(15.4)	3(7.7)
용산구	21(4.5)	2(9.5)	8(38.1)	1(4.8)	8(38.1)	2(9.5)
은평구	40(8.6)	1(2.5)	14(35.0)	3(7.5)	21(52.5)	1(2.5)
종로구	29(6.3)	1(3.4)	7(24.1)	1(3.4)	17(58.6)	3(10.3)
중구	29(6.3)	3(10.3)	19(65.5)	0(0.0)	7(24.1)	0(0.0)
종량구	12(2.6)	0(0.0)	12(100.0)	0(0.0)	0(0.0)	0(0.0)

협동조합 설립 유형

- 서울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2019년 기준 3,863개이며, 유형은 사업자(62.9%) > 다중이해관계자(29.7%) > 소비자(4.2%) > 직원(3.2%)협동조합 순으로 나타남.
-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설립된 자치구는 강남구(8.4%)이며, 서초구(7.1%) > 마포구(6.5%) > 영등포구(6.1%) 순으로 나타남.
- 용산구(76.9%), 성동구(73.7%)의 경우 사업자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도봉구(46.7%), 성북구(46.2%), 강북구(40.6%)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립됨.

<표 2-7> 2019년 협동조합 설립 유형
(단위: 개, %)

구분	전체	협동조합 유형			
		다중이해관계자	사업자	소비자	직원
	3,863(100.0)	1,148(29.7)	2,429(62.9)	161(4.2)	125(3.2)
강남구	325(8.4)	72(22.2)	235(72.3)	13(4.0)	5(1.5)
강동구	121(3.1)	31(25.6)	76(62.8)	9(7.4)	5(4.1)
강북구	64(1.7)	26(40.6)	33(51.6)	3(4.7)	2(3.1)
강서구	127(3.3)	29(22.8)	85(66.9)	9(7.1)	4(3.1)
관악구	146(3.8)	47(32.2)	83(56.8)	12(8.2)	4(2.7)
광진구	132(3.4)	49(37.1)	72(54.5)	7(5.3)	4(3.0)
구로구	170(4.4)	61(35.9)	93(54.7)	10(5.9)	6(3.5)
금천구	114(3.0)	32(28.1)	79(69.3)	1(0.9)	2(1.8)
노원구	127(3.3)	49(38.6)	74(58.3)	2(1.6)	2(1.6)
도봉구	75(1.9)	35(46.7)	37(49.3)	2(2.7)	1(1.3)
동대문	110(2.8)	36(32.7)	67(60.9)	3(2.7)	4(3.6)
동작구	98(2.5)	22(22.4)	61(62.2)	7(7.1)	8(8.2)
마포구	252(6.5)	81(32.1)	151(59.9)	8(3.2)	12(4.8)
서대문	156(4.0)	40(25.6)	90(57.7)	14(9.0)	12(7.7)
서초구	273(7.1)	88(32.2)	172(63.0)	7(2.6)	6(2.2)
성동구	152(3.9)	35(23.0)	112(73.7)	4(2.6)	1(0.7)
성북구	130(3.4)	60(46.2)	50(38.5)	9(6.9)	11(8.5)
송파구	194(5.0)	59(30.4)	129(66.5)	3(1.5)	3(1.5)
양천구	78(2.0)	22(28.2)	50(64.1)	5(6.4)	1(1.3)
영등포	237(6.1)	76(32.1)	143(60.3)	12(5.1)	6(2.5)
용산구	108(2.8)	19(17.6)	83(76.9)	2(1.9)	4(3.7)
은평구	205(5.3)	62(30.2)	131(63.9)	4(2.0)	8(3.9)
종로구	223(5.8)	60(26.9)	149(66.8)	9(4.0)	5(2.2)
중구	174(4.5)	42(24.1)	122(70.1)	4(2.3)	6(3.4)
종량구	72(1.9)	15(20.8)	52(72.2)	2(2.8)	3(4.2)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성과현황

최근 5년간(2014-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현황

-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9년 4,834개로 나타났으며 2018년 대비 400여 개가 증가하였음.
- 특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은 지난 5년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다른 유형의 조직의 설립 추이는 일정함.

<표 2-8> 최근 6년간(2014-2019)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추이

(단위: 개)

구분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2,497	3,054	3,512	3,814	4,397	4,834
사회적기업	231	260	286	307	389	463
예비사회적기업	143	173	202	143	212	222
협동조합	1,772	2,267	2,701	2,957	3,441	3,893
마을기업	125	119	114	115	104	96
자활기업	194	201	171	169	158	160
소비생협	32	34	38	38	93	-

자료: (2017-2019 설립추이) 사회적기업: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기준 설립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2019년 12월 기준 설립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설립현황. 마을기업: 내부자료, 자활기업: 현황 보고서(2017, 2018), 소비생협: 2018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내부자료, 20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료는 취합되지 않아 연도별 설립추이의 합계와 차이가 있음. (2014-2016 설립추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2016)

최근 5년간(2014-2018)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매출액 추이

- 2018년 사회적경제 조직 총 매출액은 2조 8천 4백억 원으로 나타나며, 2014년 대비 2.2배 증가하였음.
-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기업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18년 매출액은 2014년 대비 약 3.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이후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협동조합은 전수조사가 어려워 매출액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2018년의 유효 협동조합 1,970개(일반: 1,720개, 사회적: 250개)와 일반협동조합 평균매출 328백만 원, 사회적협동조합 평균매출 388백만 원을 적용하여 총 6,616억 원으로 추정
-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매출 규모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소비생협의 매출 규모는 행복중심생협을 제외한 서울지역 3대 생협(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만 매출액을 합산하여 이전 연도보다 그 규모가 줄어들었음.

<표 2-9> 최근 5년간(2014-2018)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1,280,674	1,563,125	1,961,058	2,703,234	2,847,943
사회적기업	561,067	734,898	986,816	1,692,591	1,872,045
예비사회적기업	57,443	74,511	79,357	56,179	44,832
협동조합	289,133	367,440	439,723	506,240	661,627
마을기업	8,669	12,010	14,029	18,531	18,209
자활기업	22,577	24,270	28,587	25,257	24,229
소비생협	341,785	349,995	391,171	404,080	227,000

자료: (2017-2018 매출액) 사회적기업 성과보고서, 협동조합 유효개수*평균매출 추정액, 마을기업 내부자료, 자활기업 현황 보고서(2017), 소비생협 내부자료(2014-2016 매출액)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2016)

최근 5년간(2014-2018)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일자리 수 추이

- 2018년 사회적경제 조직 총 일자리 수는 26,200개로 추정되며, 2017년 대비 5,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0자리수 이하 버림)
- 2014년 대비 2018년에 1.6배 많은 규모를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성장이 완화된 것에 비해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기업 > 소비생협 순으로 나타남.
- 협동조합의 일자리수는 2018년의 유효 협동조합 1,970개(일반: 1,720개, 사회적: 250개)와 일반협동조합 일자리 수 4.6개, 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수 13.6개를 적용하여 총 11,310개로 추정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서울지역 일자리 수는 2012-2015년의 연평균성장을(1.03)을 적용하여 2017, 2018년의 일자리 수를 추정하였음.

<표 2-10> 최근 5년간(2014-2018)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별 일자리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15,000	17,300	19,800	21,200	26,200
사회적기업	6,005	6,617	7,810	8,268	9,914
예비사회적기업	1,000	1,210	1,310	1,060	942
협동조합	4,990	6,340	7,590	7,870	11,310
마을기업	163	197	390	1,105	1,270
자활기업	1,386	1,481	1,379	1,351	1,183
소비생협	1,420	1,430	1,476	1,524	1,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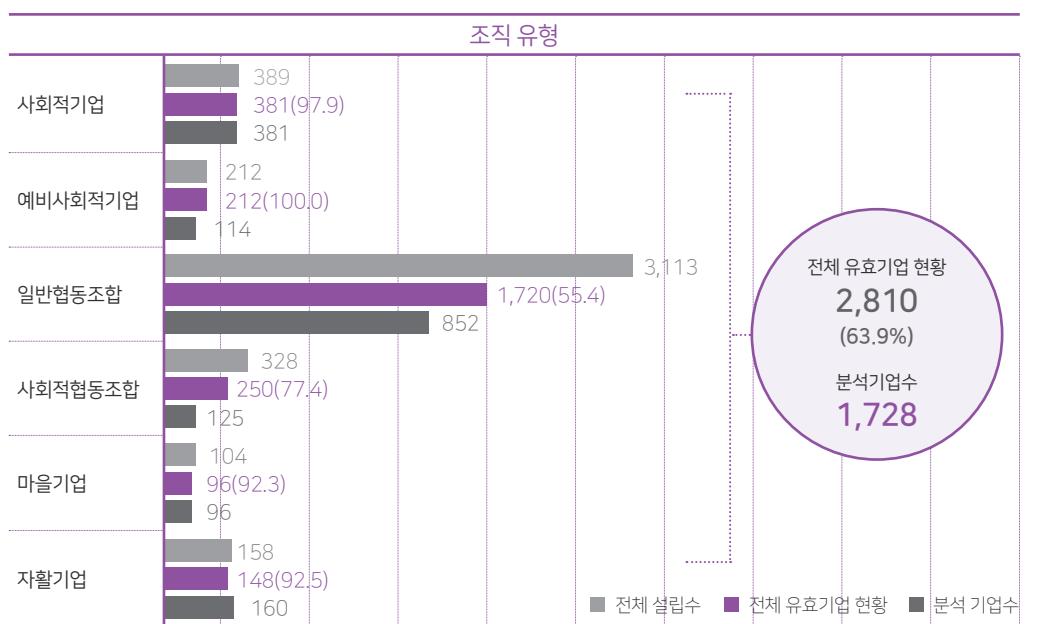
자료: (2017-2018 일자리 수) 사회적기업 성과보고서, 협동조합 유효개수*평균일자리 수 추정, 마을기업 내부자료, 자활기업 현황 보고서(2017), (2014-2016 일자리 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2016)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률 및 분석기업 수

- 2018년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90% 이상의 운영률을 보이고 있으나 협동조합 가동률(일반 협동조합 55.4%, 사회적협동조합 77.4%)에 따라 전체 사회적경제 기업 가동률은 약 63.9%로 나타남
- 2018년 성과에 분석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는 <그림 2-4>와 같으며 유효기업 2,810개 중 약 61.5%의 기업을 분석 하였음.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운영하고 있는 유효기업 전체를 분석하였으나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신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효기업 대비 50.0% 수준에서 분석함.

<그림 2-4> 2018년 사회적경제 조직 가동률 및 분석기업 수

(단위: 개, %)



주. 자활기업은 2018년 폐업예정인 기업도 분석기업수에 포함되어 유효기업 대비 숫자가 높게 나타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성과분석 이용자료

- 각 조직유형별로 취합한 조사결과는 모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유형별 조사 문항이 달라 조직 형태, 업종, 매출액, 근로자 수를 공동문항으로 추출 하였음.
- 사회적기업의 경우 서울시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보고서 일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기존 설립리스트와 비교하여 자치구를 구분하였음.
- 협동조합의 경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실태조사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매출액의 응답률(5.4%)이 저조하여 경영공시자료를 취합하여 추가하였음.
- 마을기업의 경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주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을 구분하였음.
- 자활기업의 경우 서울광역자활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현황보고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을 구분하였음.

<그림 2-5> 2018년 사회적경제 성과분석 이용자료



매출액 성과

자치구 별 매출액 합계

- 2018년 사회적경제 매출액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구의 경우 1조1,826억 원의 합계 매출액을 보임. 이는 특정기업의 높은 매출액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경우 성동구의 매출액이 다른 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기업의 경우 성북구가, 자활기업의 경우 광진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 규모를 보임.

<표 2-11> 2018년 조직 유형 및 자치구별 매출액(합계)

(단위: 백만 원)

구분	총합계	조직 유형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1,872,045.0	44,832.4	37,751.6	36,082.5	18,209.5	22,848.3	
강남구	26,806.1	17,197.0	452.3	8,780.3	12.9	16.7	346.9
강동구	24,160.6	22,329.0	575.8	26.3	256.0	973.5	-
강북구	11,122.8	6,089.0	2,401.9	-	362.0	183.1	2,086.9
강서구	40,398.6	30,359.0	-	2,965.3	4,988.6	164.1	1,921.5
관악구	20,642.0	18,917.0	61.0	-	94.9	130.1	1,439.0
광진구	33,871.4	25,799.0	688.2	527.0	-	437.1	6,420.1
구로구	30,907.0	24,931.0	204.8	178.2	3,274.6	374.2	1,944.2
금천구	109,529.5	101,635.0	488.8	5,290.9	759.3	759.3	351.1
노원구	27,355.7	14,800.0	3,037.4	322.3	7,330.9	-	1,865.1
도봉구	13,799.1	8,176.0	1,550.7	1,048.9	1,837.2	1,106.7	79.7
동대문	22,587.4	17,201.0	-	435.9	348.2	4,537.3	65.0
동작구	6,808.0	4,493.0	726.1	465.5	148.1	677.6	297.6
마포구	73,761.0	73,761.0	12,996.6	82.7	298.0	528.7	193.4
서대문	7,986.2	3,717.0	644.3	971.0	702.2	159.9	1,791.8
서초구	7,815.4	4,448.0	1,700.7	1,193.5	4.2	468.9	-
성동구	50,429.7	38,435.0	5,461.3	-	6,253.4	106.2	173.9
성북구	30,373.2	10,376.0	3,105.6	9,078.8	811.3	6,227.6	773.9
송파구	28,982.2	26,571.0	110.0	1,410.6	738.9	-	151.7
양천구	17,556.0	12,478.0	1,985.8	2,230.5	252.0	162.7	446.9
영등포	66,953.1	60,005.0	3,624.4	345.4	2,719.2	53.6	205.5
용산구	65,735.8	64,391.0	416.5	138.2	444.3	263.7	82.0
은평구	50,083.7	46,322.0	964.1	1,578.7	472.1	442.1	304.7
종로구	39,817.1	33,728.0	2,120.4	233.7	1,772.1	360.5	1,602.4
중구	1,186,137.0	1,182,637.0	1,515.7	0.4	1,944.3	-	39.6
중랑구	24,051.4	23,250.0	-	447.5	12.9	75.7	265.4

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매출액은 2019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응답된 매출액 규모를 토대로 합산하였으며, 매출액 응답률은 15.6%로 상단의 매출액 추정치와 차이가 있음.

조직 유형 및 업종별 평균 매출액

- 2018년 사회적경제 조직의 평균 매출액은 약 22억 원으로 나타나며,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도매 및 소매업'(약 137억 원)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제조업'(21억 원), '(Q)보건 복지 서비스업"(약 15억 원) 순으로 나타남.
- 마을기업에서는 '전문, 기술서비스업'이, 자활기업에서는 '(Q)보건 복지 서비스업'의 평균매출액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2> 2018년 조직 유형 및 업종별 매출액(평균)

(단위: 백만 원)

구분	총평균	조직 유형					
		사회적 기업 (n=381)	예비사회적 기업 (n=102)	일반 협동조합 (n=115)	사회적 협동조합 (n=93)	마을 기업 (n=68)	자활 기업 (n=137)
전산업	2,267.6	4,913.5	439.5	328.3	388.0	267.8	166.8
(A)농업 등	318.6	879.7	-	174.9	77.3	-	-
(C)제조업	2,173.6	3,080.8	386.8	196.6	1,503.4	147.9	113.2
(D)전기 등 공급업	77.6	-	-	77.6	-	-	-
(E)하수 및 폐기물 처리	642.0	1,091.7	1,084.8	156.0	6.2	-	85.5
(F)건설업	1,373.6	1,597.3	426.0	49.5	-	-	-
(G)도매 및 소매업	13,694.4	28,930.1	579.7	473.0	108.0	105.8	69.8
(H)운수업	697.6	3,566.2	-	1,500.0	288.0	142.6	152.6
(I)숙박 및 음식점업	423.6	2,349.6	152.4	195.3	-	75.8	120.0
(J)출판, 영상 서비스업	1,194.5	1,838.6	780.9	85.2	-	-	-
(K)금융 및 보험업	438.7	807.0	70.4	-	-	-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962.0	1,728.3	155.1	426.0	46.7	-	-
(M)전문, 기술 서비스업	701.3	623.0	197.7	1,498.8	27.1	2,389.8	126.7
(N)시설관리 지원 서비스업	503.9	1,309.7	742.7	514.7	399.5	44.5	99.1
(P)교육 서비스업	337.2	662.2	395.0	64.7	163.7	116.1	134.1
(Q)보건, 복지 서비스업	1,526.2	3,048.7	195.8	636.6	545.7	2,166.7	957.5
(R)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업	465.3	517.2	571.7	485.7	150.0	98.9	-
(S)단체, 개인 서비스업	436.6	2,451.4	469.9	156.1	391.5	63.6	97.9
(T)자가소비 생산활동	2.0	-	-	2.0	-	-	-

주. 2019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협동조합의 매출액 응답률은 15.6%로 나타남. 따라서 협동조합의 매출 추정액과 다를 수 있음.

일자리 창출 성과

자치구별 일자리 수 합계 및 평균

- 2018년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수는 총 18,946개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평균 13.2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서는 평균 13.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진구(29.9개), 종구(21.0개)에서 평균 일자리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2-13> 2018년 조직 유형 및 자치구별 일자리 합계 및 평균

(단위: 개)

조직 유형							
구분	총합계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총합계	18,946(13.2)	9,914(26.0)	942(8.4)	3,934(4.6)	1,703(13.6)	1,270(13.2)	1,183(7.4)
강남구	620(7.4)	290(16.1)	3(3.0)	230(4.0)	74(24.7)	10(10.0)	13(3.3)
강동구	384(9.4)	182(22.8)	14(2.3)	83(4.9)	42(10.5)	63(10.5)	-
강북구	636(12.5)	314(52.3)	20(4.0)	100(5.6)	31(7.8)	102(25.5)	69(4.9)
강서구	750(10.6)	450(34.6)	-	156(5.0)	79(19.8)	18(4.5)	47(2.6)
관악구	705(15.0)	403(26.9)	4(4.0)	133(11.1)	51(12.8)	21(5.3)	93(8.5)
광진구	1,587(29.9)	800(100.0)	35(11.7)	142(5.5)	15(15)	108(21.6)	487(48.7)
구로구	934(8.6)	224(16.0)	8(4.0)	212(3.7)	234(19.5)	137(17.1)	119(7.9)
금천구	860(13)	643(29.2)	7(3.5)	118(4.4)	36(9.0)	44(11.0)	12(1.7)
노원구	660(8.6)	200(22.2)	43(10.8)	189(6.5)	179(16.3)	-	49(2.2)
도봉구	508(9.8)	90(10.0)	109(21.8)	118(4.9)	145(24.2)	35(8.8)	11(2.8)
동대문	505(9.2)	267(44.5)	-	128(3.5)	50(8.3)	54(18.0)	6(2.0)
동작구	325(8.1)	74(10.6)	11(5.5)	127(6.4)	44(11.0)	63(15.8)	6(2.0)
마포구	1,521(14.8)	1,130(45.2)	153(9.0)	193(4.1)	13(6.5)	21(3.0)	11(2.2)
서대문	338(6.1)	49(5.4)	49(9.8)	122(4.9)	49(9.8)	33(8.3)	36(5.1)
서초구	496(5.4)	107(10.7)	29(9.7)	283(3.8)	35(11.7)	42(21)	-
성동구	1060(18.0)	873(43.7)	81(16.2)	64(2.7)	29(7.3)	8(2.7)	5(1.7)
성북구	955(10.4)	130(6.8)	70(5.4)	167(4.2)	161(26.8)	399(79.8)	28(3.1)
송파구	450(6.3)	298(19.9)	3(3.0)	110(2.7)	35(5.0)	-	4(2.0)
양천구	618(11.7)	367(61.2)	38(4.2)	159(5.1)	29(14.5)	7(7.0)	18(4.5)
영등포	1,235(11.1)	786(24.6)	81(13.5)	189(3.3)	159(14.5)	14(7.0)	6(3.0)
용산구	544(9.4)	318(18.7)	21(7.0)	91(3.8)	58(11.6)	16(2.7)	40(13.3)
은평구	897(7.7)	493(14.1)	29(2.9)	267(4.8)	41(10.3)	51(7.3)	16(4.0)
종로구	676(9.4)	217(9.4)	125(20.8)	160(5.3)	68(11.3)	16(8.0)	90(18.0)
중구	1,389(21.0)	1,045(40.2)	9(4.5)	295(9.8)	38(6.3)	-	2(2.0)
중랑구	293(9.5)	164(18.2)	-	98(6.1)	8(8.0)	8(8.0)	15(3.8)

주. 일자리 수는 기업에서 임금, 비임금근로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로 취업자와 다른 개념.

업종별 일자리 수 합계 및 평균

- 업종별 일자리 수 평균은 '(Q)보건, 복지 서비스업' (39.0개), '(C)제조업'(14.6개), '(N)시설관리 지원 서비스업'(12.9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협동조합에서는 카페 및 도시락사업이 포함된 '(I)숙박 및 음식점업'(9.6개)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컨설팅 등이 포함된 '(M)전문 기술 서비스업"(23.8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4> 2018년 조직 유형 및 업종별 일자리 합계 및 평균

(단위: 개)

조직 유형							
구분	총평균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전산업	18,946 (11)	9,914(26)	942(8.4)	3,934(4.6)	1,703(13.6)	1,270(13.2)	1,183(7.4)
(A)농업 등	139(4.1)	16(5.3)	-	70(3.0)	42(8.4)	8(4.0)	3(3.0)
(B)광업	6(6.0)	-	-	6(6.0)	-	-	-
(C)제조업	3,168 (14.6)	2,544(25.4)	121(8.1)	234(3.5)	76(10.9)	183(7.6)	10(2.5)
(D)전기 등 공급업	117(9.0)	-	-	64(5.3)	53(53.0)	-	-
(E)하수 및 폐기물 처리	170(9.4)	92(30.7)	28(14.0)	38(3.8)	7(7.0)	-	5(2.5)
(F)건설업	344(5.8)	217(9.9)	-	127(3.4)	-	-	-
(G)도매 및 소매업	2,253 (8.8)	1,374(32.0)	94(9.4)	637(3.7)	38(9.5)	71(7.1)	39(2.6)
(H)운수업	271(5.4)	62(12.4)	-	105(6.6)	7(7.0)	15(5.0)	82(3.3)
(I)숙박 및 음식점업	789(8.9)	225(32.1)	60(8.6)	297(9.6)	4(4.0)	133(7.0)	70(2.9)
(J)출판, 영상 서비스업	877(11.7)	606(26.3)	112(12.4)	159(3.8)	-	-	-
(K)금융 및 보험업	12(6.0)	12(12.0)	-	-	-	-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208(8.3)	53(13.3)	16(5.3)	103(6.4)	36(18.0)	-	-
(M)전문, 기술 서비스업	708(7.2)	170(8.5)	47(5.2)	299(5.2)	119(23.8)	65(32.5)	8(2.0)
(N)시설관리 지원	1,363(12.9)	805(40.3)	44(11.0)	229(7.2)	131(21.8)	31(10.3)	123(3.0)
(O)공공행정	5(2.5)	-	-	5(2.5)	-	-	-
(P)교육 서비스업	1,784 (5.9)	305(7.8)	148(4.8)	773(4.3)	352(10.4)	156(12.0)	50(6.3)
(Q)보건, 복지 서비스업	5,113(39)	2,899(100)	182(26.0)	346(8.4)	615(16.2)	362(120.7)	709(54.5)
(R)예술 등 서비스	1,080(7.2)	478(8.4)	46(4.2)	262(4.0)	85(17.0)	209(19.0)	-
(S)단체, 개인 서비스업	512(5.6)	56(11.2)	44(14.7)	153(3.8)	138(9.2)	37(7.4)	84(3.7)
(T)자가소비 생산활동	27(3.9)	-	-	27(3.9)	-	-	-

지속성 성과

평균 운영기간

- 2018년 기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평균 운영기간은 4.6년이며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음.
- 전체 업종 중 '(E)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이 평균 6.8년으로 가장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으며 > '(N)시설관리 지원 서비스'(5.9년) > '(D)전기, 가스 공급업'(5.0년) 순으로 나타남.

<표 2-15> 2018년 조직 유형 및 업종별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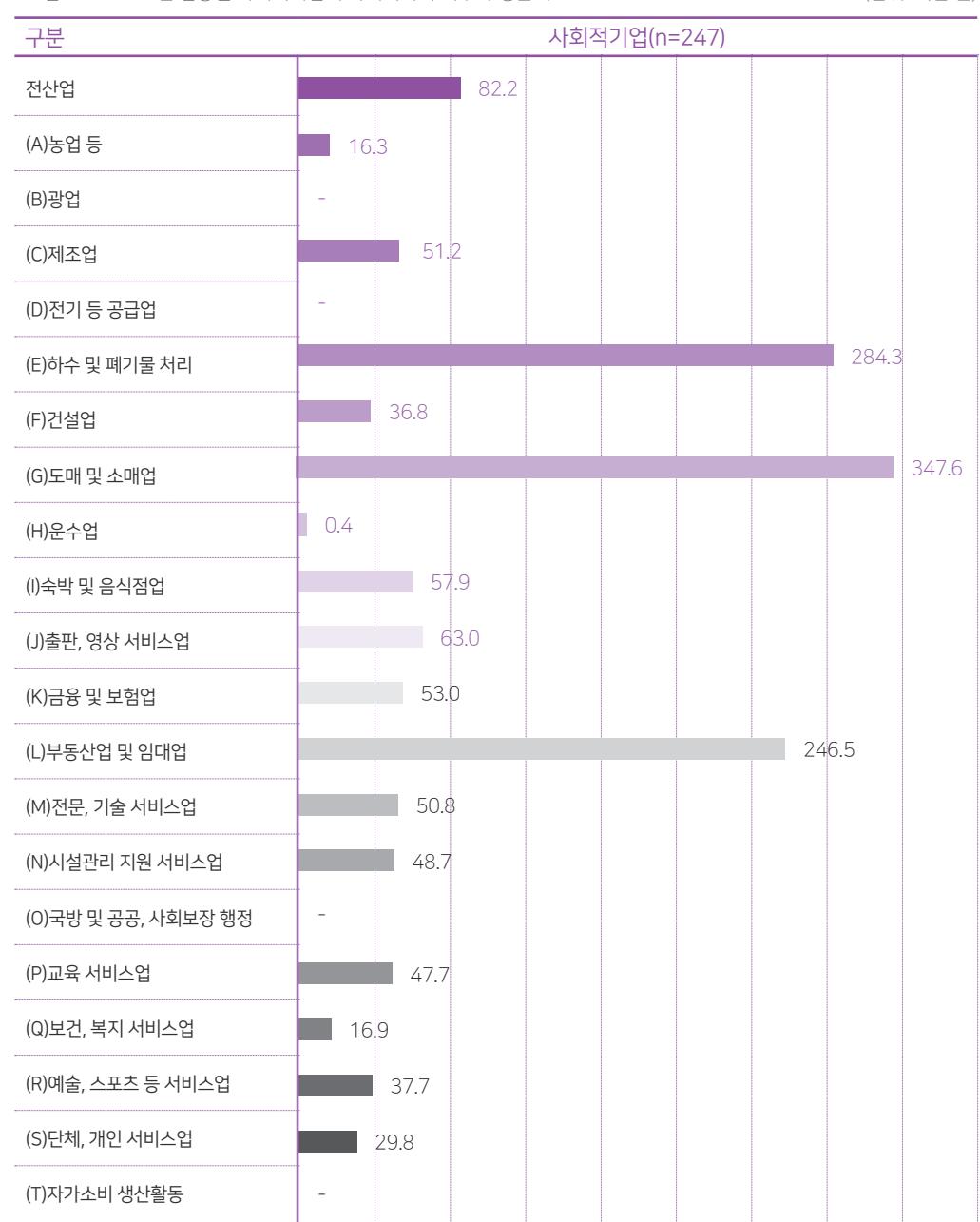
구분	총평균	조직 유형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전산업	4.6	5.5	3.9	4.0	3.2	6.2	6.0
(A)농업 등	4.2	4.3	-	4.0	4.3	8.0	0.3
(B)광업	1.3	-	-	1.3	-	-	0.0
(C)제조업	4.7	5.6	2.1	3.9	3.0	5.9	5.2
(D)전기 등 공급업	5.0	-	-	5.3	1.3	-	-
(E)하수 및 폐기물 처리	6.8	5.5	23.0	4.0	3.3	-	8.7
(F)건설업	4.0	4.5	1.0	3.8	-	-	-
(G)도매 및 소매업	4.4	5.4	2.3	4.3	3.4	6.6	3.3
(H)운수업	4.8	7.1	-	3.8	5.9	16.4	3.6
(I)숙박 및 음식점업	4.3	4.7	2.4	4.1	1.0	16.4	3.9
(J)출판, 영상 서비스업	4.4	4.5	3.8	4.4	-	8.8	-
(K)금융 및 보험업	3.5	5.1	2.0	-	-	-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4.7	3.3	13.7	3.7	1.8	-	-
(M)전문, 기술 서비스업	4.0	3.8	3.3	4.0	2.6	5.8	8.5
(N)시설관리 지원 서비스업	5.9	3.9	6.5	3.7	4.4	5.9	8.7
(O)국방 및 공공, 사회보장 행정	6.1	-	-	6.1	-	-	-
(P)교육 서비스업	4.2	6.1	3.9	3.7	3.1	5.5	9.3
(Q)보건, 복지 서비스업	4.9	7.3	2.0	3.8	3.3	5.6	8.9
(R)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업	4.5	6.2	2.4	3.5	2.6	4.6	-
(S)단체, 개인 서비스업	4.7	5.0	10.7	4.3	3.4	7.1	5.0
(T)자가소비 생산활동	3.9	-	-	3.9	-	-	-

조직 유형별 성과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재투자 평균액

-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윤이 발생했을 때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자리창출,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등임.
- 2018년에 운영된 사회적기업 381개 중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기업은 247개이며, 평균 약 8천 2백만 원을 재투자함.
- 업종별로 도매 및 소매업(347.6백만 원) > 하수 및 폐기물처리(284.3백만 원) > 부동산 및 임대업(246.5백만 원) 순으로 재투자 금액이 나타남.

<그림 2-6> 2018년 업종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평균액



협동조합 조합원 수 합계 및 평균

- 협동조합의 경우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2018년 기준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약 37,263명으로 평균 38.3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일반협동조합(29.7명)보다 사회적협동조합(97.8명)의 조합원 수가 약 3배 정도 많으며 전체 업종 가운데 '(D) 전기, 가스 및 공기 조절공급업'의 조합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6> 2018년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원 수 합계(평균)

(단위: 명)

합계(평균)	총계(평균) (n=974)	일반협동조합(평균) (n=851)	사회적협동조합(평균) (n=123)
전산업	37,263(38.3)	25,235(29.7)	12,028(97.8)
(A)농업, 임업 및 어업	600(21.4)	491(21.3)	109(21.8)
(B)광업	5(5.0)	5(5.0)	-
(C)제조업	2,454(33.6)	801(12.0)	1,653(275.5)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622(278.6)	3,602(300.2)	20(20.0)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79(16.3)	158(15.8)	21(21.0)
(F)건설업	521(14.1)	521(14.1)	-
(G)도매 및 소매업	8,375(47.3)	8,057(46.6)	318(79.5)
(H)운수업	274(16.1)	266(16.6)	8(8.0)
(I)숙박 및 음식점업	846(26.4)	835(26.9)	11(11.0)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708(64.5)	2,708(64.5)	-
(K)금융 및 보험업	-	-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819(45.5)	795(49.7)	24(12.0)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94(15.8)	729(12.6)	265(53.0)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46(45.9)	639(20.0)	1,107(184.5)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8.0)	16(8.0)	-
(P)교육 서비스업	4,501(21.3)	2,375(13.3)	2,126(64.4)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338(67.6)	1,022(24.9)	4,316(113.6)
(R)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445(20.6)	1,375(21.2)	70(14.0)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2,754(50.1)	774(19.4)	1,980(132.0)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66(9.4)	66(9.4)	-

협동조합 평균 출자금액

- 2018년 자치구별 협동조합의 출자금 평균은 약 3천 5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협동조합(1억1천8백만 원) 출자금이 일반협동조합(2천3백만 원)보다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L)부동산업 및 임대업'(215.4백만 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N)사업시설관리업'(80.2백만 원) > '(Q)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7.0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운수업(80.1백만 원)의 출자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시설관리업(238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조합원의 수를 반영하여 1인당 출자금을 살펴보면 평균 2.9백만 원(일반협동조합=2.4백만 원, 사회적협동조합=6.6백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7> 2018년 업종별 협동조합 평균 출자금액

(단위: 백만 원)

	총계 (n=959)	일반협동조합 (n=844)	사회적협동조합 (n=115)
전산업	35.1	23.4	118.6
(A)농업, 임업 및 어업	27.7	22.2	52.9
(B)광업	81.0	81.0	-
(C)제조업	35.0	27.8	115.4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1.4	62.5	47.9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7.6	12.1	72.2
(F)건설업	20.3	20.7	-
(G)도매 및 소매업	28.3	27.2	74.5
(H)운수업	82.2	80.1	116.5
(I)숙박 및 음식점업	13.0	13.2	6.5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9	20.9	-
(K)금융 및 보험업	-	-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215.4	8.6	1,869.6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0	32.2	28.3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0.2	49.7	238.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7	0.7	-
(P)교육 서비스업	13.0	10.0	29.2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7.0	18.3	136.3
(R)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1.7	22.0	14.8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36.0	23.3	75.0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6.6	6.6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성과

개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운영

- 서울시 각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1단계 최대 3년동안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사업단'과 2단계 최대 6년동안 지원 받는 '통합지원센터'가 있음.
- 2019년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생태계사업단은 5개이며, 통합지원센터는 16개가 있으며, 자치구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센터가 있음(동작구, 송파구, 서대문구, 종로구).
- 다음 자치구별 내용은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2019)를 발췌·활용하였으며,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연차별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작업하였음.

<표 2-18>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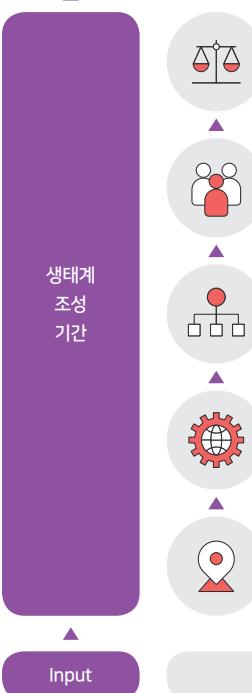
자치구	생태계사업단(1단계)→통합지원센터(2단계)	'19년 보조금 교부현황(천 원)		생태계사업단 통합지원센터
		생태계사업단	통합지원센터	
1차선정	계 5개 자치구 운영중	16개 자치구 운영중	850,000	1,810,614
	성북 종료('12. 7~'15.6, 3년)	5년차('15.7~'20.6)	94,600	
	금천 종료('12. 7~'15.6, 3년)	5년차('15.7~'20.6)	95,000	
	은평 종료('12. 7~'15.6, 3년)	5년차('15.7~'20.6)	95,000	
	관악 종료('12. 7~'15.6, 3년)	5년차('15.7~'20.6)	94,814	
	도봉 종료('12. 7~'15.6, 3년)	3년차('17.7~'20.6)	140,000	
2차선정	구로 종료('12.11~'15.10, 3년)	5년차('16.1~'20.10)	99,000	
	성동 종료 ('12.11~'15.10, 3년)	5년차('15.11~'20.10)	99,000	
	강북 종료('12.11~'15.10, 3년)	5년차('15.11~'20.10)	99,000	
	노원 종료('12.11~'15.10, 3년)	5년차('15.11~'20.10)	99,000	
	강동 종료('13.6~'16.5, 3년)	4년차('16.6~'20.5)	116,000	
	마포 종료('13.6~'16.5, 3년)	4년차('16.6~'20.5)	114,200	
3차선정	동대문 종료('15. 1~'17.12, 3년)	2년차('18.1~'19.12)	140,000	
	광진 종료('14.10~'17. 9. 3년)	3년차('18.10~'20.9)	145,000	
	동작 종료('14.10~'17. 9. 3년)	2년차 미신청(구 직영) ('17.10~'18. 9. 1년)	200,000	
	양천 종료('14.10~'17. 9. 3년)	3년차('18.10~'20.9)	140,000	
	영등포 종료('14.10~'17. 9. 3년)	3년차('18.10~'20.9)	135,000	
	5차선정 용산 종료('16.1~'18. 12. 3년)	1년차('19.1~'19.12)	105,000	
6차선정	강서 3년차('17. 1~'19.12)		200,000	
	종로 3년차('17. 1~'19.12)		200,000	
	서초 3년차('17. 1~'19.12)		200,000	
7차선정	중구 2년차('18. 1~'19.12)		150,000	
8차선정	강남 1년차('19. 1~'19.12)		100,000	
	송파 미신청(구 직영)			
	종로 미신청			
	서대문 2년차 미신청(구 직영)			

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강남구

생태계 조성과 성과 흐름(2019-2020)

강남구는 2019년 생태계조성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강남구 사회적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 중. 특히, 구민, 학교, 지역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확산 활동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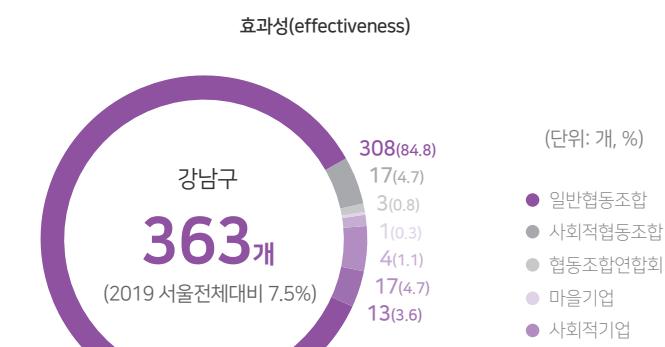
서울시 예산, 자치구 예산, 시민사회(사경조직)의 인적자원 투입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주체호능감(efficacy)	효율성(ef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공동워크숍 추진 사회적경제 주체 전략사업 과제 도출 포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생태계 조성사업 1년차 사업 진행 지역으로 초기 주체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의제 설정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 및 컨설팅, 홍보지원, 인큐베이팅, 네트워크운영 지원사업 등을 전개(수서역 SRT 홍보매대 연계 등)

사회적 자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센터 건립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및 사회적경제 활동 기회 확대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공동구매 활성화 교육 사회적경제 주체 전략사업 과제도출 포럼 진행

지역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구 지역의제 밤길 워크숍 진행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일반 이해 교육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1년차 사업을 수행함. 사회적경제 우호적 환경에서 생태계 1년차를 시작함. 강남구 사회적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남구와 함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개시함(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초기 주체 형성과 강남구의 지역의제 설정 필요

강동구

생태계 조성과 성과 흐름(2013-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주체효능감(efficacy)	효율성(ef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조직 협업체계 추진(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암사도시재생지원센터, 성내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협업) 협동조합 확대(학교협동조합/문화예술협동조합) 통합민간거버넌스 조직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동구의 지역특성이 주거 및 생활 공간 기반이 강한지역으로 주거 및 생활공간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정원문화포럼, 마을숲코디네이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제사업으로 장애인, 청소년, 환경등의 교육 주제와 숲과 관련한 콘텐츠 활용, 시니어와 도시재생 의제의 경우 문화, 예술여행 중심의 콘텐츠 사업으로 생태계 사업전개 								
사회적 자산 성과	효과성(effe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도서관, 주민 모임 대관사업, 입주기업관리 등을 진행 주요 사업 콘텐츠 : 사회적경제아카데미, 강반장 코디네이터, 마을대동제, 선사축제 부스 운영, 사회적경제 도서관 사업 등 	<table border="1"> <tr> <td>146개</td> <td>(2019 서울전체대비 3.0%)</td> </tr> <tr> <td>110(75.3)</td> <td>11(7.5)</td> </tr> <tr> <td>6(4.1)</td> <td>9(6.2)</td> </tr> <tr> <td>10(6.8)</td> <td>(단위: 개,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46개	(2019 서울전체대비 3.0%)	110(75.3)	11(7.5)	6(4.1)	9(6.2)	10(6.8)	(단위: 개, %)	
146개	(2019 서울전체대비 3.0%)									
110(75.3)	11(7.5)									
6(4.1)	9(6.2)									
10(6.8)	(단위: 개, %)									

시사점

강동구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중심으로 콘텐츠 중심의 사업 전개가 특징이며, 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희망제작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주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반장(대주민 사회적경제 알리미), 선사축제 참여, 사회적경제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며 주민과 접촉하고 있음.

강북구

생태계 조성과 성과 흐름(2012-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주체효능감(efficacy)	효율성(ef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북구 사회적경제 청년서포터즈 '영플러', 삼각산고등학교 실용경제 수업, 성신여대 문화산업비즈니스 수업, 강북구돌봄네트워크, 강북자원순환네트워크, 강북구민간거버넌스협의회, 시장활성화 TFT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 실행주체의 발굴과 주체로의 동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북구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네트워크, 공동주택과의 MOU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연결, 청년서포터즈를 통한 사회적경제 홍보 영상 등 주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전개로 성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 및 연대사업을 기반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제공, 성신여대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콜라보를 통한 반조리제품 출시, 영세자영업자 통합돌봄서비스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화 지원사업 																
사회적 자산 성과	社会效益(effectiveness)	효과성(effe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자산화 진행(한국주택공사 허그 사업 연계로 강북나눔돌봄센터 건립 완료/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 건립 중) '앞다니기계'라는 판매 공간 운영(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로컬 상품 등의 안테나숍) 	<table border="1"> <tr> <td>95개</td> <td>(2019 서울전체대비 2.0%)</td> </tr> <tr> <td>55(57.9)</td> <td>9(9.5)</td> </tr> <tr> <td>4(4.2)</td> <td>14(14.7)</td> </tr> <tr> <td>7(7.4)</td> <td>6(6.3)</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95개	(2019 서울전체대비 2.0%)	55(57.9)	9(9.5)	4(4.2)	14(14.7)	7(7.4)	6(6.3)	<table border="1"> <tr> <td>95개</td> <td>(2019 서울전체대비 2.0%)</td> </tr> <tr> <td>55(57.9)</td> <td>9(9.5)</td> </tr> <tr> <td>4(4.2)</td> <td>14(14.7)</td> </tr> <tr> <td>7(7.4)</td> <td>6(6.3)</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95개	(2019 서울전체대비 2.0%)	55(57.9)	9(9.5)	4(4.2)	14(14.7)	7(7.4)	6(6.3)
95개	(2019 서울전체대비 2.0%)																	
55(57.9)	9(9.5)																	
4(4.2)	14(14.7)																	
7(7.4)	6(6.3)																	
95개	(2019 서울전체대비 2.0%)																	
55(57.9)	9(9.5)																	
4(4.2)	14(14.7)																	
7(7.4)	6(6.3)																	

시사점

강북구는 지역 환경을 중심으로 사업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자원순환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으며, 지역 어르신 및 영세자영업자 통합돌봄체계, 대학과 연계한 사업전개, 도시재생지원센터, 허그, 마사회, 신용보증재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외부 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강서구

생태계 조성과 성과 흐름(2017-2020)



관악구

(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2-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주체효능감(efficacy)	효율성(ef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사회책임조달 공시제 시행 및 공공구매 시장 비율 향상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 강서지역 돌봄서비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조직 결성 강서구 돌봄서비스 특화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곡사업단지 사회적가치 연계사업으로 마곡임주기업체협의회와 교류관계 형성 한국공항공사 사회적가치 연계 사업추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사회적경제 기업 입주공간 및 클러스터 공간) 																								
사회적 자산 성과	효과성(effe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홍보 어벤저스 사업단 도라보니1.0 사업단 	<table border="1"> <thead> <tr> <th>Category</th> <th>Value</th> <th>Percentage</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협동조합</td> <td>116</td> <td>(67.8%)</td> </tr> <tr> <td>사회적협동조합</td> <td>11</td> <td>(6.4%)</td> </tr> <tr> <td>마을기업</td> <td>4</td> <td>(2.3%)</td> </tr> <tr> <td>자활기업</td> <td>18</td> <td>(10.5%)</td> </tr> <tr> <td>사회적기업</td> <td>16</td> <td>(9.4%)</td> </tr>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6</td> <td>(3.5%)</td> </tr> <tr> <td>Total</td> <td>171</td> <td>(2019 서울전체대비 3.5%)</td> </tr> </tbody> </table>		Category	Value	Percentage	일반협동조합	116	(67.8%)	사회적협동조합	11	(6.4%)	마을기업	4	(2.3%)	자활기업	18	(10.5%)	사회적기업	16	(9.4%)	예비사회적기업	6	(3.5%)	Total	171	(2019 서울전체대비 3.5%)
Category	Value	Percentage																								
일반협동조합	116	(67.8%)																								
사회적협동조합	11	(6.4%)																								
마을기업	4	(2.3%)																								
자활기업	18	(10.5%)																								
사회적기업	16	(9.4%)																								
예비사회적기업	6	(3.5%)																								
Total	171	(2019 서울전체대비 3.5%)																								
지역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어벤저스 '도라보니 돌봄사업' 별들장애인 일자리 창출(사회적기업 채용)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 																										

14

강서구는 장애인, 돌봄, 교육 중심으로 특화모델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특화 모델로 구축 진행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을 위한 우드락 공작소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있음.

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주체효능감(efficacy)	효율성(efficiency)																								
<p>관악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악협동조합협의회, 관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강사단 협동조합 등 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p> <p>사회적경제 의제와 관련하여서는 학교, 여성, 건강분야의 제 중심으로 협력적 주체성과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적 주체 형성 결과 사회적자산을 구축하고 외부자원을 유입하여 지역 사업 확장에 기여 건강한 주체 형성이 관악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역량강화 교육과 연대 및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상호거래 및 공공구매 등을 통한 기업간 성장 및 견인에 기여 																								
사회적 자산 성과	효과성(effectiveness)																									
<p>사회적경제 코워킹스페이스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 사회적경제 온라인 홍보관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체계를 구체화</p> <p>공공구매 및 상호거래 확대 추진 및 분기별</p>	<table border="1"> <thead> <tr> <th>Category</th> <th>Value</th> <th>Percentage</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33</td> <td>73.9%</td> </tr> <tr> <td>2</td> <td>13</td> <td>7.2%</td> </tr> <tr> <td>3</td> <td>1</td> <td>0.6%</td> </tr> <tr> <td>4</td> <td>4</td> <td>2.2%</td> </tr> <tr> <td>5</td> <td>11</td> <td>6.1%</td> </tr> <tr> <td>6</td> <td>15</td> <td>8.3%</td> </tr> <tr> <td>7</td> <td>3</td> <td>1.7%</td> </tr> </tbody> </table> <p>(단위: 개, %)</p>		Category	Value	Percentage	1	133	73.9%	2	13	7.2%	3	1	0.6%	4	4	2.2%	5	11	6.1%	6	15	8.3%	7	3	1.7%
Category	Value	Percentage																								
1	133	73.9%																								
2	13	7.2%																								
3	1	0.6%																								
4	4	2.2%																								
5	11	6.1%																								
6	15	8.3%																								
7	3	1.7%																								
지역화 성과																										
<p>관악구 사회적경제 마을장터 꿈시장 성장(연인 2만 명)</p> <p>사회적경제 관련 프로젝트 사업으로 외부 자금 유입 지역화에 기여(진흥원, 사회복지공동kip금회,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4

생태계 조성사업 1차 운영지역으로서 서울시의 생태계 조성사업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초기 모델임. 서울시 25개 치구 중 2012년부터 생태계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네트워크, 어린이집/어린이집, 그 밖의 이제비(나트)인코가 활성화되며 특지이다.

광진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4-2020)



구로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2-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성장전략을 통한 돌봄산업 활성화

주체효능감(efficacy)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각 분야별 네트워크와 연결된 구조로 생태계가 강화된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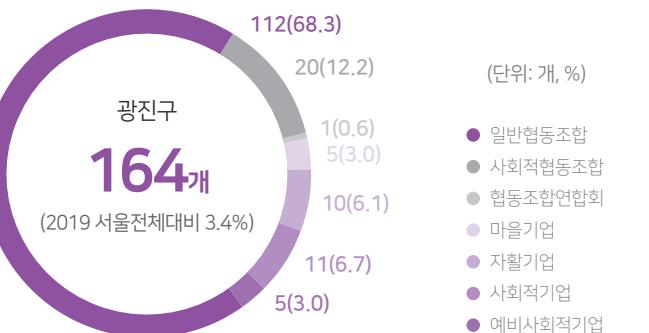
효율성(efficiency)

- 지역화폐를 통한 상호거래를 중심으로 상호거래가 활발한 자치구이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조합원 자격, 윤리, 운영위원회, 거래조성위원, 기금위원회)들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 구사

사회적 자산 성과

- 상호거래 물품 확대
- 장터 및 습인증 확대
- 공공시장 거래 증가

효과성(effectiveness)



시사점

광진구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조합원 체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분과 사업과 자생력을 키우는 지역기금, 지역자산화 사업 등 도법적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상호거래와 인적개발 서비스를 위한 교육분과, 의제별 조직단위 네트워크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임.
더불어 협동조합 창업, 사회적경제기업 보육사업도 병행 추진.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구로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범위 확장
- 구로민간대표자협의회, 구로마을넷, 공정무역 성공회대 구로마을대학 연계
- 학부모 협동조합 강사 양성
- 권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참여(서남권)

주체효능감(efficacy)

- 구로구 민간과의 협력구조로 다문화의 문제, 구로 디지털단지 협동조합 구성 등 지역의 민간주체와 연결한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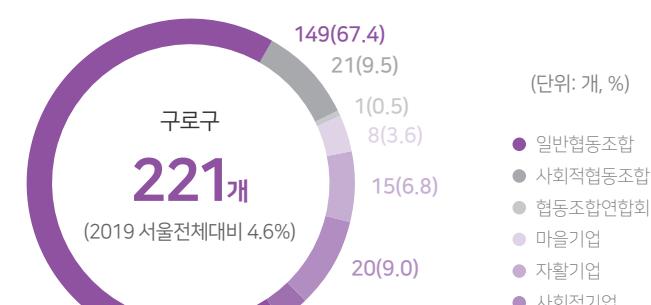
효율성(efficiency)

- 성공회대와 연계 구로 건강가족센터와의 다문화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개발, G밸리 협동조합 구성, 사회적경제 장터, 구로소셜마켓, 버들 마을시장 등 지역중심 민관 공동영업단을 통해 공공시작 개척 및 상호거래 추진

사회적 자산 성과

- 웹 커뮤니티 구축
- 소셜마켓 및 신규장터 개발
- 상호거래 활성화(성공적인 상호거래 기업 자료 축적)

효과성(effectiveness)



시사점

타 자치구 성과와 마찬가지로 구로지역 주체형성을 시작으로 지역환경에 적합한 다문화, IT 등의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다문화의제 사업으로 구로마을대학, 구로건강가족센터, 화원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적경제 이해 교재의 중국어 번역을 발행하거나 G밸리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추진한 사례는 지역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주요 성과임.

금천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2-2020)



노원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2-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지역의제 발굴 및 의제별 주체 조직화, 사회적경제 주체간 협업체계 구축, 정기모임이 지속적 참여를 통한 관계형성 및 교류, 주체의 지속적인 지역활동 지원
- 주체간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의 경험 축적&판로확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 기업의 경영문제 공동해결

주체효능감(efficacy)

- 주체간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경험은 성공 경험의 측면으로 주체 중심 연대와 협동의 자치구 성과로 연결됨.
- 전략적 의제 설정이 가능했으며 의제별&부문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활용을 통한 주체의 사업 경쟁력 강화(도시재생, 교육, 홍보&판촉, 클러스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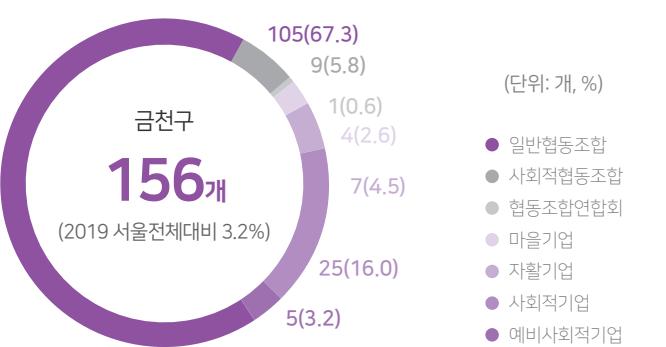
효율성(efficiency)

- 주체간 연대 효과는 상호거래, 공동브랜드, 온라인 플랫폼, 공동판매장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포괄적 사회적경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천구 지역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

사회적 자산 성과

- 지역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금천사회적경제연대 설립 및 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적경제지원사업 위탁운영
- 사회적경제기업 거점 공간운영(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공동브랜드 구축, 공동판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활용

효과성(effectiveness)



지역화 성과

- 관내 주거재생분야 협동조합 설립(마을건축협동조합), 마을관리소 프로젝트 추진(3년), 도시재생지 연계형 지역관리기업(CRC) 설립지원
- 사회적경제특화사업(3년) 추진, 교육&돌봄사회적협동조합(준) 설립예정

시사점

2012년부터 시작한 생태계조성사업 1차 운영 지역으로 금천구의 주요 의제는 교육, 돌봄, 주거재생, 패션 봉제 등 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교육, 돌봄, 주거재생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업체계 구성 추진 중이며 마을관리소 프로젝트, 도시재생지 연계형 지역관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반면 패션 봉제분야의 의제는 방향성을 전환, 지역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로 개편하여 안착함.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노원 사회적경제주체 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컨설팅, 설립 및 운영 협약
- 시민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기초 심화 발전)
- 청년 SE 아카데미 정기 운영
- 사회적경제체험단 운영(체험단 이후 사회적경제 주체로 성장)

주체효능감(efficacy)

- 사회적경제 공동영업단을 통해 공공구매 박람회, 공동홍보 추진, 사회적경제 한마당 협동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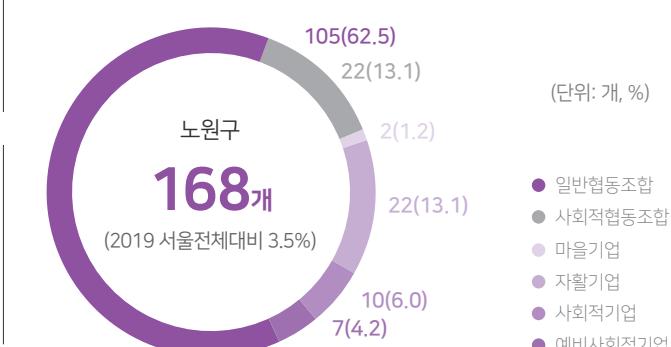
효율성(efficiency)

- 사회적경제 공동영업단을 통해 공공구매 박람회, 공동홍보 추진, 사회적경제 한마당 협동사업 추진

사회적 자산 성과

-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마련(휴카페)
- 청소년 협동조합학교 개설
- 공유공간 활용 클러스터 설립 추진

효과성(effectiveness)



시사점

노원구의 경우 먹을거리 의제, 자원순환 의제, 돌봄의제, 청소년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전개: 자원순환의 경우 재사용거점 매장 사업 연합 구성,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의 협업모델을 추진하였으며, 먹을거리 의제의 경우 북부교육청과 지역기반형사업 추진, 돌봄의제의 경우 우리동네 나눔번장 사업등 정책사업과 연계 성과로 연결함.

도봉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2-2015, 2017-2020)



동대문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5-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도봉마을넷 조직 구성
- 프로보노단 구축 운영
- 네트워크 구축(시민단체/협동조합 등 유대 강화)

주체효능감(efficacy)

-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를 통해 사업 추진
-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 법인으로 도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주체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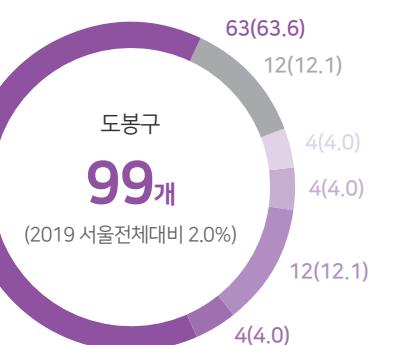
효율성(efficiency)

- 창의 애듀랩(기술전수 교육장) 및 창업보육 센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등 창업 보육 및 공공구매 설명회 사회적경제 교육 등 공간 중심 사업 연계

사회적 자산 성과

- 창업 보육센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개소
- 공동판매장 운영

효과성(effectiveness)



지역화 성과

- 창업지원센터 운영(사회적경제조직 진입 확대)
- 기술전수 교육장 공유사업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학습동아리 지원, 강사 양성, 시민교육, 청소년 교육 활용)

시사점

도봉구 사회적경제 사업의 주체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동조합으로 '도봉이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음. 현재 시점에서는 교육과 마을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주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남.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업종별 연대강화 및 협력사업 진행
- 지역 내 잇다마켓 브랜딩 정착
- 사회적경제 포럼, 한마당 등 진행
-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연장 강화

주체효능감(efficacy)

- 산학협력사업으로 서울시립대와 디자인 마케팅 역량을 높인 결과물을 도출 하기도 하였으며, 지역기반 청년 사회 혁신 아카데미인 창창캠퍼스, 음식중심의 청년외식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효율성(efficiency)

-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국민대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기업 역량을 강화
- 산업협력모임으로 교육, 복지, 도시환경, 문화예술 4개분야로 정기적 활동 진행

사회적 자산 성과

- 산학 협력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사회적경제 한마당 진행
- 청년외식창업가 육성 및 인큐베이팅

효과성(effectiveness)



지역화 성과

- 지역의제연구 학습모임 및 모델 발굴 지원
- 대학과 연계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진행
- 사회적경제 포럼, 산업연대모임 확대

시사점

동대문구의 특성은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 사회혁신을 창업 아카데미 창창캠퍼스 운영 등 청년 중심 사업을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음. 특히 DDM일자리 발전소는 지역작가, 예술인 등 소생산자(MAKER)의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 또한 산업협력모임을 통해 2019년은 사업협력의 기반을 조성한 원년으로 보고 2020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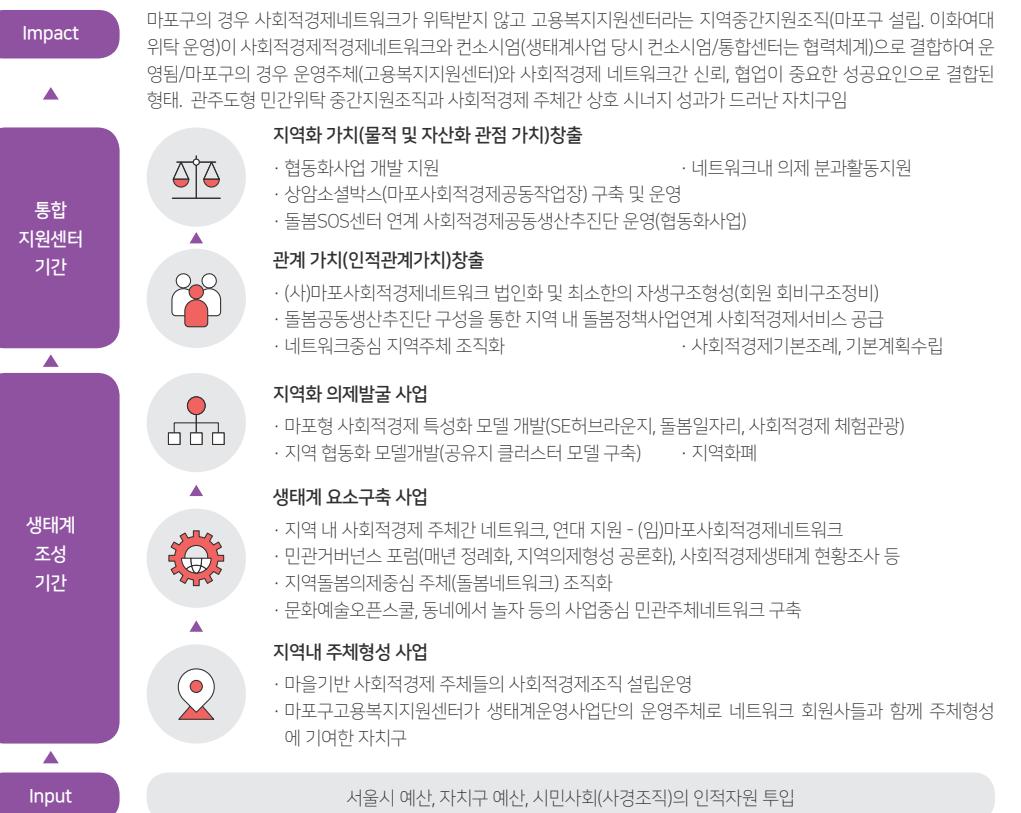
동작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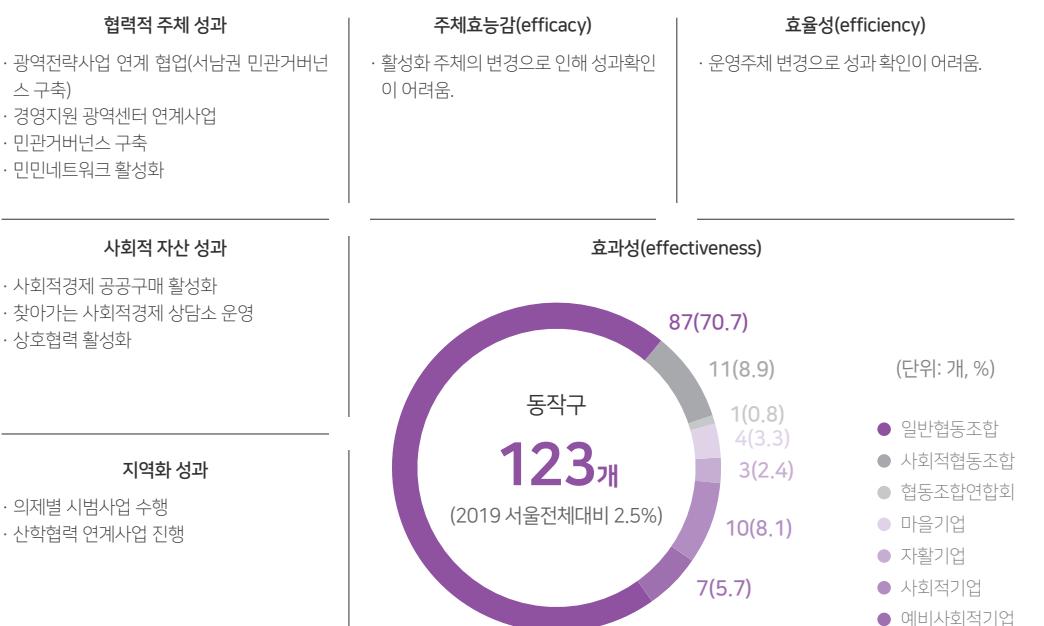


마포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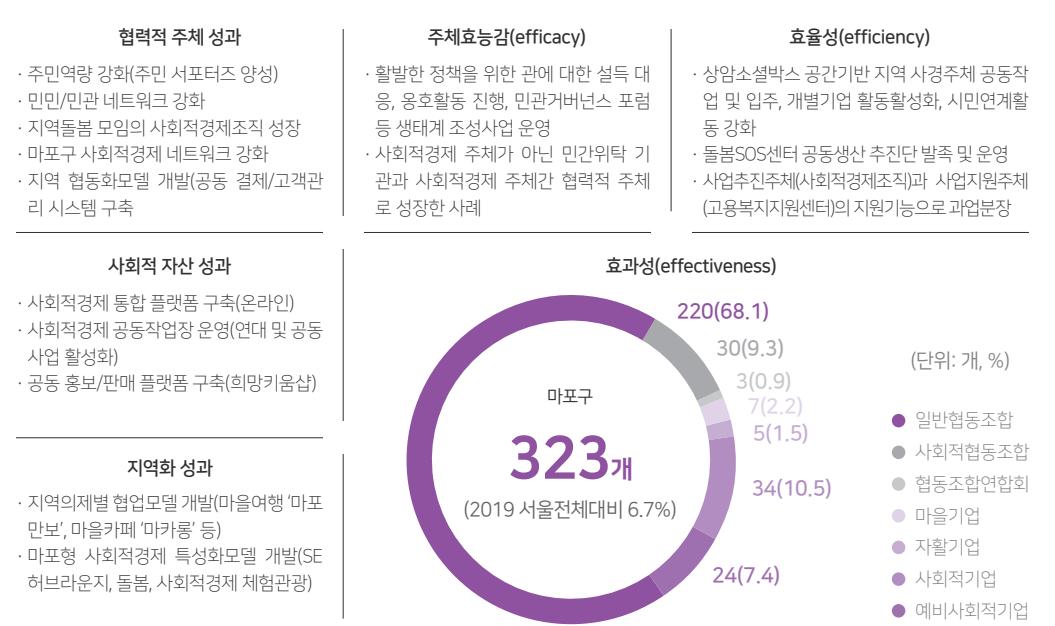
성과요약 및 시사점



시사점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된 사례로, 이전 성과가 현재 동작구 운영주체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운영주체로서 활동하는 차치구로 이전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

성과요약 및 시사점



시사점

마포구의 경우 운영주체와 사업주체의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주체로서의 역할로 생태계 조성사업과 통합지원센터 사업이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옴. 타 차치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체 형성 이후 생태계조성사업과 통합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한 것에 비해 마포구의 경우 기존 사회적경제조직과 위탁기관과의 협업구조로 사업을 추진함.

서초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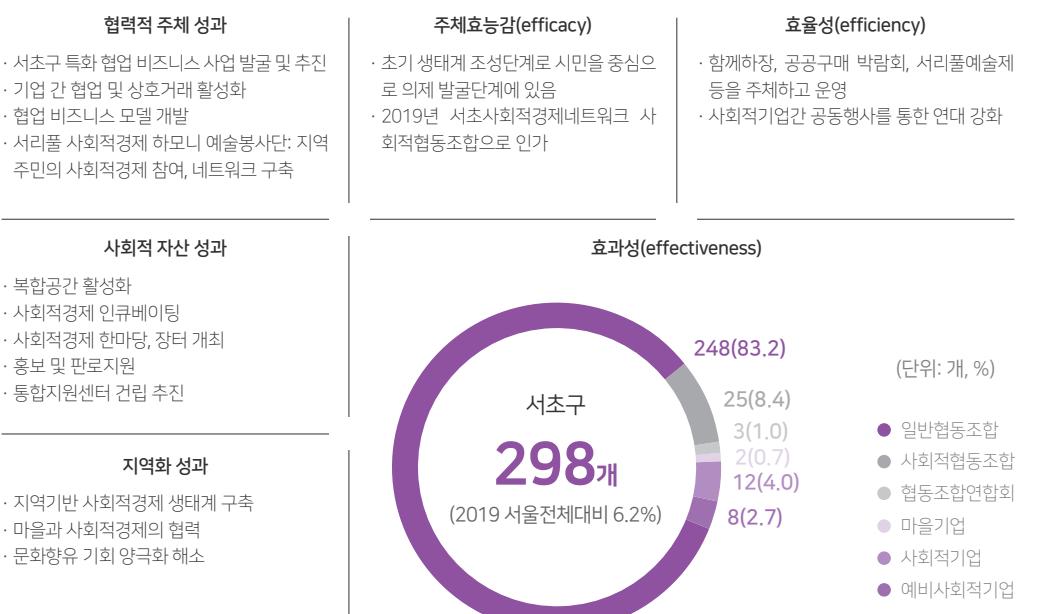


성동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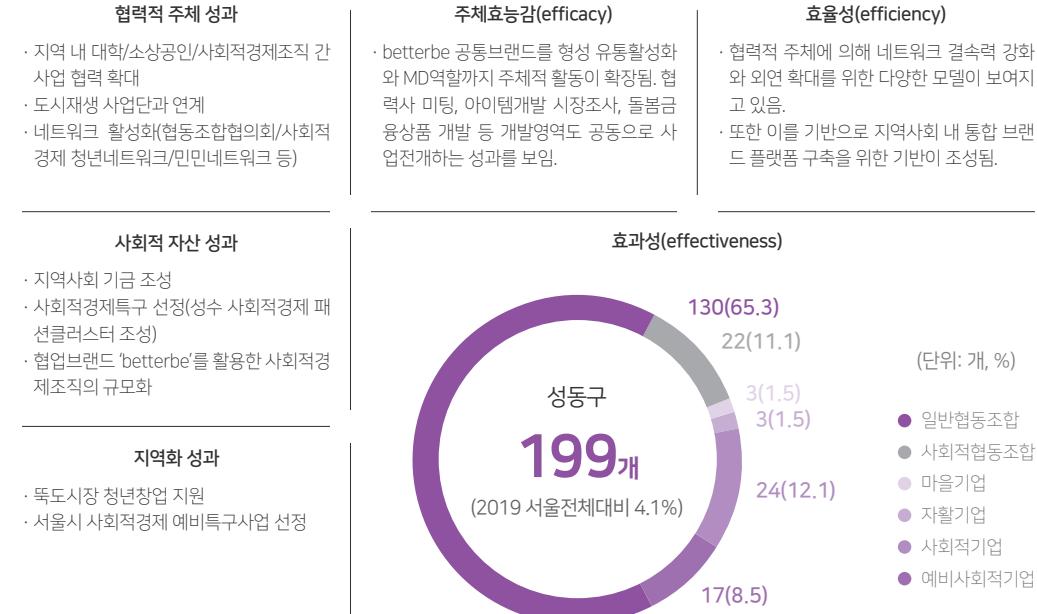
성과요약 및 시사점



시사점

서리풀 사회적경제 예술제, 함께하장 등 오피라인 사업 전개로 사회적경제간 협업사업 전개

성과요약 및 시사점



시사점

성동구의 경우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정기로 주체역량에 기반한 인큐베이팅을 시작으로 지역특화사업이 잘 개발되어 있는 자치구임. 지역특화사업으로 인삼마을조성, 소셜벤처 교류 및 협업화 모델 개발, 협동조합화 협업화 모델 개발, 이종간 협동화 모델개발, 소셜패션 특구로서의 소공인 협동조합의 규모화 등 초기 생태계 조성단계에서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성북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 (2012-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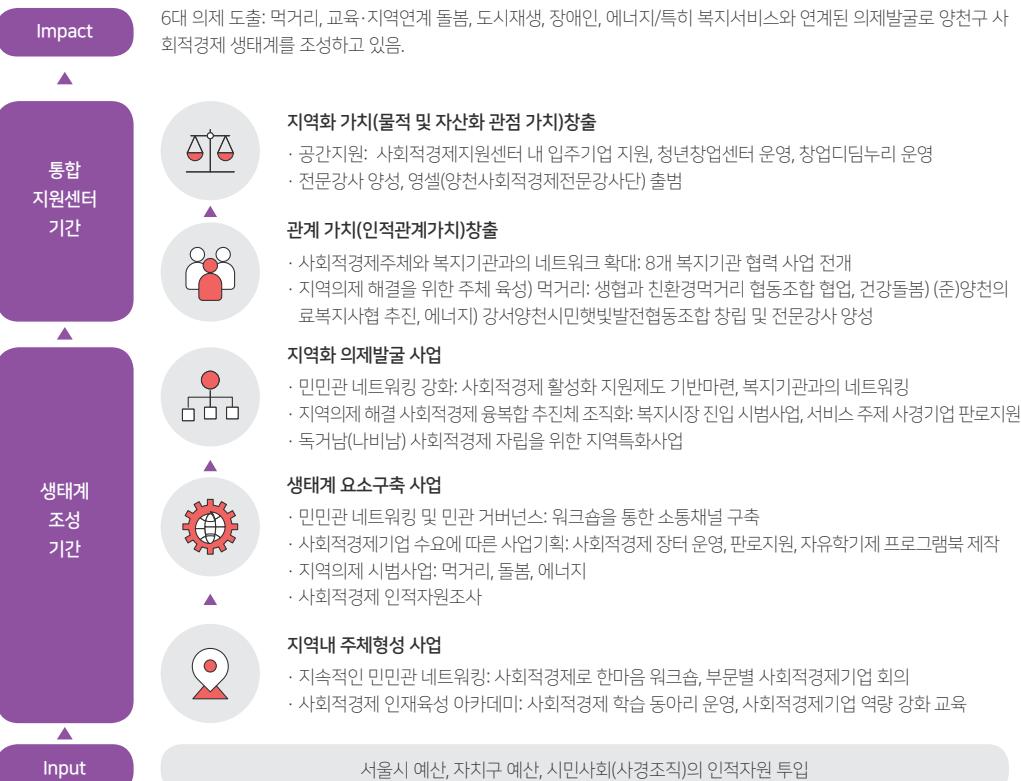
협력적 주체 성과	주체효능감(efficacy)	효율성(ef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북평화민주운동 협업기관 구축 및 시민교육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된 지역협력법인 설립 민간(마을사회적경제주체) 융복합법인 설립 동북4구 협력 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로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중간조직의 민간수탁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민간자원이 통합된 점이 주요한 성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 지원과 공공시장성, 생태계 지속을 위한 지속기금마련 사회적자산 구축 성장단계별 지원의 연계, 공공부문 마케팅 추진, 정책대응 등 지역기반 사경기업과 마을 단위의 활동체계 구축 																								
사회적 자산 성과	효과성(effe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 조성 및 활성화 마을기금 시범사업 운영 및 조성 진행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관 운영 및 활성화 	<p>성북구 184개 (2019 서울전체대비 3.8%)</p> <table border="1"> <thead> <tr> <th>Category</th> <th>Value</th> <th>Percentage</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협동조합</td> <td>107(58.2)</td> <td>22(12.0)</td> </tr> <tr> <td>사회적협동조합</td> <td>22(12.0)</td> <td>1(0.5)</td> </tr> <tr> <td>협동조합연합회</td> <td>5(2.7)</td> <td>9(4.9)</td> </tr> <tr> <td>마을기업</td> <td>9(4.9)</td> <td>21(11.4)</td> </tr> <tr> <td>자활기업</td> <td>21(11.4)</td> <td>19(10.3)</td> </tr> <tr> <td>사회적기업</td> <td>19(10.3)</td> <td>1(1.0)</td> </tr> <tr> <td>예비사회적기업</td> <td>1(1.0)</td> <td>6(5.9)</td> </tr> </tbody> </table>	Category	Value	Percentage	일반협동조합	107(58.2)	22(12.0)	사회적협동조합	22(12.0)	1(0.5)	협동조합연합회	5(2.7)	9(4.9)	마을기업	9(4.9)	21(11.4)	자활기업	21(11.4)	19(10.3)	사회적기업	19(10.3)	1(1.0)	예비사회적기업	1(1.0)	6(5.9)	(단위: 개, %)
Category	Value	Percentage																								
일반협동조합	107(58.2)	22(12.0)																								
사회적협동조합	22(12.0)	1(0.5)																								
협동조합연합회	5(2.7)	9(4.9)																								
마을기업	9(4.9)	21(11.4)																								
자활기업	21(11.4)	19(10.3)																								
사회적기업	19(10.3)	1(1.0)																								
예비사회적기업	1(1.0)	6(5.9)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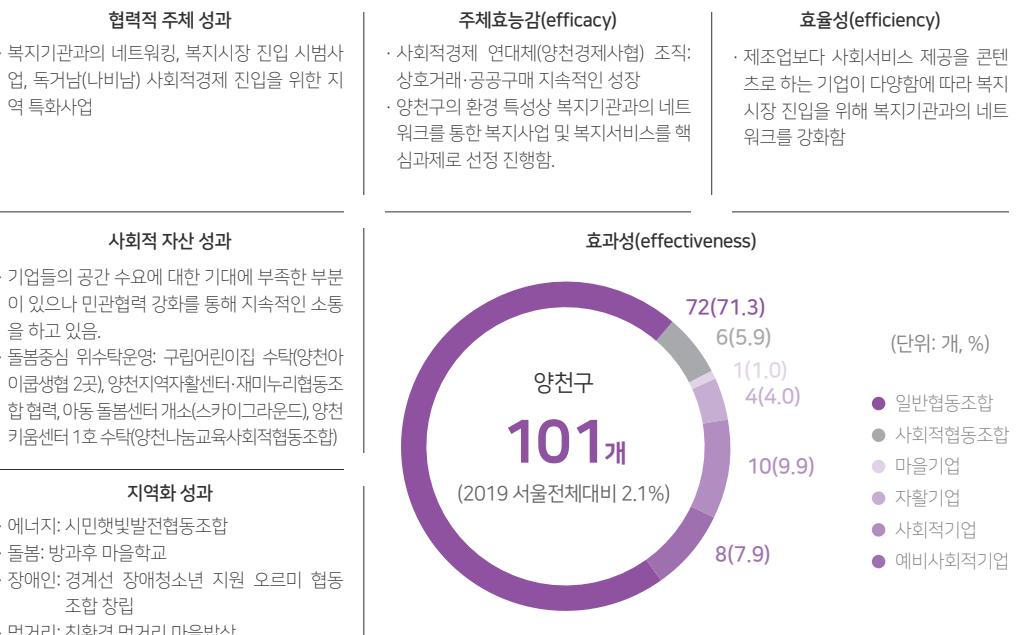
성북구의 경우 생태계 조성 사업 초기부터 함께하는 성북마당,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성북구청 사회적경제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동북4구 특화사업단, 동북4구 협동조합협의회 등과 허브 공간을 통한 상시 교류네트워크 활동을 지속 추진, 확장하여 동북4구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수행 등 민간융합 및 민관 거버넌스 확대에 주력, 지역법인 함께살이 성북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수탁 운영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 투자기금 조례 재정 등의 성과를 보여줌.

양천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4-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시사점

지역주민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골목장터 및 생활상권 사업, 같이살림 사업의 핵심공동주체로 신록종합사회복지관(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이 두드러짐. 양천구의 환경 특성에 맞춰 복지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전개: 전략적으로 나비남 프로젝트, 구립어린이집 수탁, 지역 자활 연계, 아동 돌봄센터 개소, 양천 키움센터 등 복지 서비스가 특화된 자치구로 성장 중.

영등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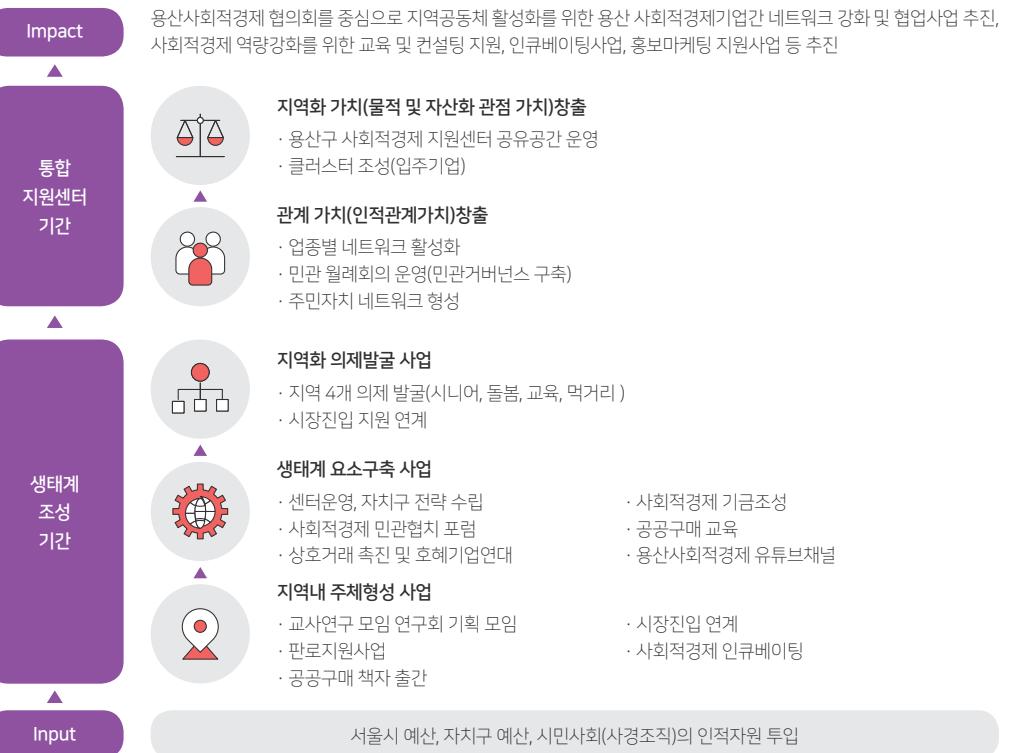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4-2020)



서울시 예산, 자치구 예산, 시민사회(사경조직)의 인적자원 투입

용산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6-2019)



서울시 예산, 자치구 예산, 시민사회(사경조직)의 인적자원 투입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지원센터 운영 안정화와 실무 전문성 강화
- 타자치구와의 협력 확대

주체효능감(efficacy)

- 2015년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 사회적경제협의회 결성(선배 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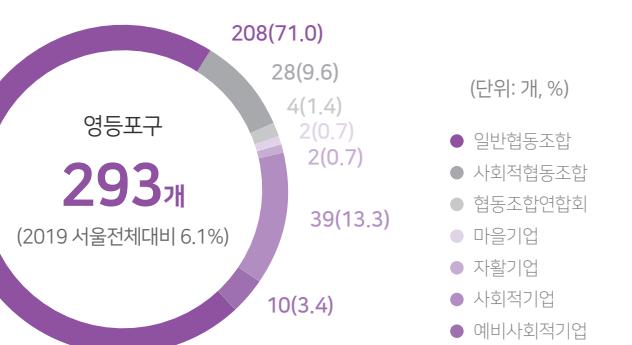
효율성(efficiency)

- 인큐베이팅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 진행 교육, 상담, 컨설팅이 주요 업무로 보임.
- 영등포의 선배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 선배그룹의 경험은 창업단계의 기업에게 효율적임.

사회적 자산 성과

-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을 위한 지역밀착형 민관 지원활동 상시화
- 기업 생애주기별/업종별/부분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 공공구매 및 상호거래 등을 통한 판로지원 강화

효과성(effectiveness)



지역화 성과

- 지역 밀착형 사경/지역기관/주민 연계 확대
- 사회적경제 주민교육 강화
- 현장사례 중심의 맞춤 아카데미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 주체 육성 발굴 및 성장 지원

시사점

영등포의 경우 인력공백으로 인해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중심 운영위원회 등 영등포 생태계 조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얹보임.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민관거버넌스 구축
-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종사자 역량 강화
- 관내 네트워크 강화

주체효능감(efficacy)

- 용산구는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추진 중,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협의체 성격의 범인(15개 회원사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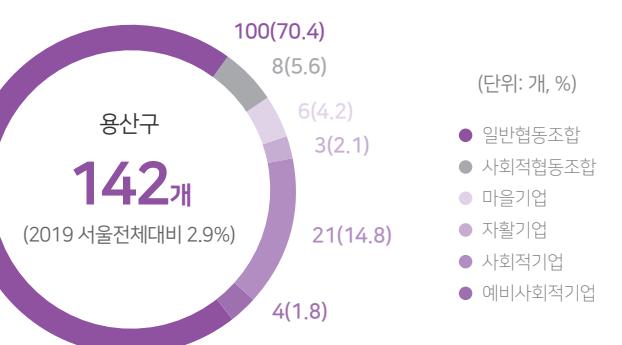
효율성(efficiency)

- 현재까지는 의제 형성단계로 보이며, 용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흥보 및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

사회적 자산 성과

- 판로 구축
- 공공구매 작동원리 이해력 제고
- 동료컨설팅 효과성 증대

효과성(effectiveness)



지역화 성과

- 용산사회적경제 교사연구 모임 진행
- 울산 사회적경제 유튜브채널 개발
- 4개 의제 발굴, 의제별 사업화 개발
- 마을학교 교육 콘텐츠 개발

시사점

용산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은 연구 모임, 교육 등 초기 생태계 지원사업단의 과업전개 양식을 띠고 있으며, 가시적인 생태계의 협업, 연대의 사업 형태는 보이지 않고 있음. 생태계 조성 초기 단계로 주체의 협력을 통한 타 자치구의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임.

은평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2-2020)



종로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7-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설립: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은평상상)과 공동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수탁
-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운영: 지역 기업의 은평 맞춤형 교육 개발 및 출강을 통한 세대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주체효능감(effic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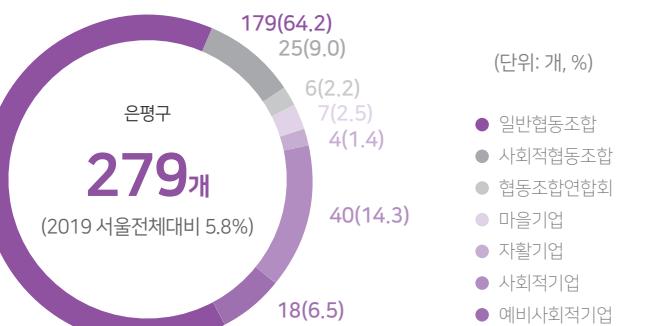
효율성(efficiency)

-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적 발굴: 마을기업 5개년 연속 발굴 등은 당사자조직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지원조직으로서 가능한 영역임. 지속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주체'임을 증명
-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 돌봄과 마을형 기업 육성에 주요 사업으로 선정 지역단위 주민대상 판촉을 강화
- 주요 사업은 은평꽃피는 장날, 은평 공동체화폐, 소셜밥터디, 공동브랜드,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으로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

사회적 자산 성과

-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말이랑' 운영: 지역 기업의 마케팅 및 상품개발
-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판로 '은평꽃피는 장날' 운영: 지역단위 주민 대상 판매 채널 개발

효과성(effectiveness)



지역화 성과

- 공동체 화폐 '평화' 운영: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상호 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정책 현안 '돌봄' 사업으로의 센터 역량 집중화: 은평통합돌봄네트워크 발족, 서울시 정책사업 수행(같이살림, 우리동네나눔반장, 주민기술학교), 돌봄 2차 사업을 수행할 기업체 발굴

시사점

은평구의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꾸준한 인큐베이팅 작업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할 기업을 연속 발굴하는 것과 돌봄 사업으로 센터 역량을 집중하여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점이 도드라짐. 또한 명확한 사업 전개로 교육은 청소년 중심, 사회적기업 제품 판촉을 위한 공동브랜드, 공동체 화폐, 은평꽃피는 장날 등을 핵심사업으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질적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 종로 문예 투어리즘 진행
- 민관 네트워크 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종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 운영위원회
- 종로 문예예술단체와 협업 소셜마켓 판로지원
- 50+센터와 공동 주관, 종로형 교육모델 발굴

주체효능감(efficacy)

종로 문예 투어리즘 진행을 통해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육성 창업, 콘텐츠 개발, 지역 로컬 소셜 비즈니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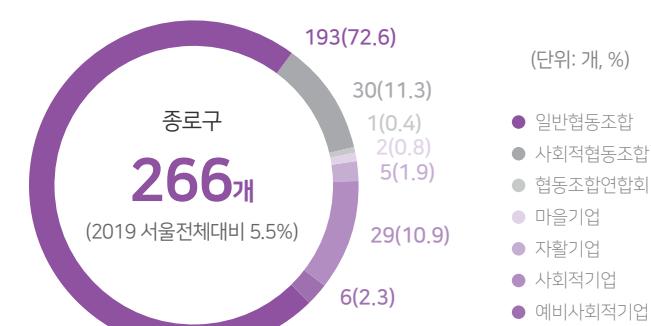
효율성(efficiency)

종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통해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사회적 자산 성과

- 사회적경제기업 수출판로 워크숍,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
- 종로화동 소셜마켓 개최
- 크라우드 펀딩 진행

효과성(effectiveness)



지역화 성과

- 종로 문예 투어리즘 3년간 성장 지원
- 종로 소셜 컨퍼런스 개최
- 소셜 컨퍼런스 공론장 및 후속회의 진행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재생 혁신사업 추진

시사점

종로구는 생태계 활성화 초기 단계로 문화예술을 중심,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판로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재생 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 중.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셜 디아닝 개최, 판로지원을 위한 종로 소셜마켓 및 클라우드 펀딩,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콘텐츠 개발 사업, 소셜 컨퍼런스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8~10개 기업 참여 협업 모델을 만들어 가는 중.

중구

생태계 조성 성과 흐름(2018-2020)



성과요약 및 시사점

협력적 주체 성과	주체효능감(efficacy)	효율성(effici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정례화, 공동정책 추진 공공구매 박람회 공동 업무단 운영 정책 포럼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구지역 사회적경제기관 협의체로 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 설립 사회적경제포럼, 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적경제주체역량강화, 사회적경제플랫폼으로 4개 사업영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구사회적경제 포럼을 통해 중구의 지역의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지역의 공동체와 공공기관 및 구민의 참여확대와 인식개선 시도
사회적 자산 성과	효과성(effectiv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참석 고등학교 창업 동아리 지원 주민공동체 교육 지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p>중구 215개 (2019 서울진체대비 4.4%)</p> <p>157(73.0) 16(7.4) 2(0.9) 1(0.5) 1(0.5) 29(13.5) 9(4.2)</p> <p>(단위: 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시사점

초기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단계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 추진과 사회적경제 주체 형성을 위한 주체 발굴 및 인적 역량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시장조성을 위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 사회적경제기업간 성장을 지원함.

3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

01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주요
성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주요 성과

1) 시민 체감도 향상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확장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및 실행지원

- 서울시민의 일상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단위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함.
- 시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기회 제공
- 시민이 생활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및 지원

공동주택 사업 추진 내역

- 2018년 공동주택 경제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단지 선정 및 사회적경제조직 매칭을 통한 9개의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함.
- 사회적경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민워크숍, 주민공동체 비즈니스 역량 보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주민생활 서비스·상품 개발 및 제공 지원
- 매뉴얼 제작, 주거서비스 표준안 개발을 통해 기본계획의 구체 수립 및 사업 실행의 기반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공동주택 경제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 개발·운영함.(총 15강, 56시간, 20명)
- 2019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여 11개 자치구, 20개 단지가 총 24회의 논의를 통해 사업방향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함.
- 사업방향 수립, 자원 연계 등 서울시 본사업 실행지원을 통해 사업 확산 및 기반 마련

파급효과

- 해당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시민주체 출현 및 성장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기획-시범사업운영-본사업 실행지원을 통한 서울 사회적경제 정책파트너십을 구축함.

▶ 2018년
사업 기획

▶ 2018년
시범사업 운영

▶ 2019년 서울시
본사업 실행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비전 수립 및 실증 사업 추진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경제정책 선도 모델로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기여함.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확장 진입

지역돌봄 사업연합 활성화와 규모화로 시민체감도 제고

- 지역기반 돌봄 실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역할 및 사업 방향 수립
- 돌봄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밀착성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커뮤니티케어 사업 지속 추진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발한 '우리동네 나눔반장'을 서울시 정책사업에 반영함. 이러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의 성과를 토대로 '돌봄SOS센터와 사회적경제 연계 모델(우리동네 나눔반장)'을 서울시 정책사업에 반영

지역기반 통합돌봄서비스 확산

- 2018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연합 커뮤니티케어 모델 발굴
- 450여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조사, 5종·22개 서비스의 세분화 및 단가 기준안 수립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표준화 기반 마련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 모델 개발(총 5건: 신규 콘텐츠 개발 2건, 실증지역 기반 2건, 마을기업 중심 1건)
- 2019년 우리동네나눔반장 선행·실증사업 추진으로 표준 실행모델 수립
- 서울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선정 5개 자치구(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대상으로 지역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망 구축을 위한 선행사업과 생활권역 돌봄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 사업 준비 및 수행 과정 진단과 성과 평가를 통해 생활기반·광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 균질화 및 임팩트 창출을 위한 표준실행 모델 수립(연구 1건)
- 지역돌봄 사업단 '우리동네나눔반장' 구축 등 체계적인 대응 노력
- 자치구, 광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사업 추진그룹을 구성하여 지역단위 협력체계와 돌봄서비스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복지 담당 부서 및 자치구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주도성 확보

파급효과

-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 사업 주체의 공급력 확인 및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사업연합이 주도하는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제시

▶ 2018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연합
커뮤니티케어 모델 발굴

- 450여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조사
- 5종·22개 서비스의 세분화 및 단가 기준안 수립

▶ 2019
우리동네나눔반장
실증사업 추진

- 5개 자치구 34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 2,341건의 서울시 돌봄SOS센터 일상편의 서비스 공급

▶ 2019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제시

-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사업 참여로 자치구 단위의 새로운 커뮤니티케어 모델 가능성 시사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주요 성과

2) 시장조성 및 기업지원

공공시장 확대 지원

공공시장 수요 분석 및 매칭활동

- 사회적경제 조직에 적합한 사업과 잠재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공공시장 수요분석 활동
-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공공시장 수요가 확인된 분야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진입 확대를 위한 매칭활동

추진 프로세스



- 수요분석 공공시장 수요분석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구매데이터, 예산데이터, 발주계획, 입찰정보를 분석함.
- 적합사업 발굴 사회적경제 조직이 즉시 사업참여가 가능한 사업과 잠재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함.
- 사업세부조사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분야로 선별한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 참가자격 등 사회적경제 진입 가능성 및 적합성 분석
- 제안 및 매칭활동 공공기관 방문상담, 품목별 추천기업 정보 제공 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1:1 매칭상담을 통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됨.
- 2017년 매칭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를 확대 발전시켜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함.

<표 3-1> 공공구매 관련 주요 성과

사업	2018	2019
참여 공공기관	54개	56개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106개	122개

정보제공을 통한 구매확대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가 저조한 공공기관/부서를 대상으로 구매접근이 쉬운 상품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 구매 적합한 사업 품목과 공급 가능한 기업정보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구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함.

정보제공 및 매칭 프로세스



- 공공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즌별, 테마별로 품목 타겟을 선정하여 정보제공 및 매칭 활동 전개
- 자치구 사경과에 제공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안에 따라 사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정보제공 효과를 높임.

공공시장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제안 활동

- 사회적경제 기업 물품으로 구매 전환 및 신규 구매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및 사업 제안 활동
- 공공조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상시적인 공공구매 질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장애 요소를 해결함.
- 교육지원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활동 수행.

파급효과

- 공공기관의 예산 및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시장 수요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활용도 높은 공공시장 현황 파악
- 편중되었던 품목과 공공기관 및 부서를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효과를 창출함.
-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신규 시장을 발굴함.

<표 3-2> 공공시장 확대 주요 성과

사업	2017	2018	2019
공공구매 매칭 실적(누계)	65.6억	81억	101.6억
정보제공을 통한 구매확대	-	110건	4,918건
교육 및 설명회	38회	47회	24회
공공조달 일상 상담	330건	208건	236건

민간판로 확대 지원

거점매장 발굴·활성화

- 기존의 사회적경제 장터 및 박람회 중심의 단기적·일시적 판매 지원에서 상시 판매가 가능한 거점매장 발굴·활성화 지원으로 판로사업 전략 전환 수립
- [대형마트] 2017년, 시민 접점과 생활재 취급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를 거점매장으로 선정, 2018년 1월부터 200평 규모의 전국 최대 사회적경제 전문 판매장 운영 지원(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 내 공감마켓)
- 총 60개 기업 입점 지원, 누적 매출 427,204천 원 달성 민간판로 진입 희망 기업들의 초기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면세점] 2018년, 서울 사회적경제 제조업 중 강점이 있는 패션 분야 취급 비중이 높은 면세점을 거점매장으로 선정, 2018년 12월부터 사회적경제 친환경 패션 판매장 운영 지원(JDC면세점) 총 16개 기업 입점 지원, 누적 매출 975,777천 원 달성
- 또한 면세점 채널이 거점매장으로 지속가능하도록 JDC·서울시·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 ('19.7월)하고, 고품질 제품군과의 경쟁을 통해 질적 성장 및 시장 경쟁력 확인

생협매장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 사회적경제에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생협을 중심으로 한 판로지원 정책 수립
- 사업 첫해인 2016년도에 생협매장 내 사회적경제 상시 판매장과 임시 판매장 공동 운영했으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는 상시 판매장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
- 생협매장 내 사회적경제 상시 판매장 2017년 14개, 18년 29개, 19년 31개 발굴·운영하는 등 사업 참여 생협 매장 적극 확대
※ 2019년 두레생협(20개 매장), 한살림생협(8개 매장), 행복중심생협(3개 매장)
- 유통형 사회적경제 기업과 제조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연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 (2017-2019) 총 19개 기업 입점 지원, 누적 매출 543,653천 원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

- 롯데홈쇼핑·서울시·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업무 협약 체결('18.7월)
- 업무 협약 이후 2018년, 2019년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선정하여 10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롯데홈쇼핑 TV채널 방송 판매 진행
- 사업 선정기업에게는 홈쇼핑 업계 최소 수준 수수료 적용, 1천만 원 내외 홈쇼핑 입점 제반 비용(품질검사비, 영상제작비 등) 지원
- 사업 2년차인 2019년 홈쇼핑 채널 특화 컨설팅 연계, 사업 참여 대상 확대, 지원 내용 강화로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누적 매출 137,265천 원 달성
- 오프라인 판매 채널(거점매장·생협) 외에도 비대면 판매 채널 운영을 통한 판로 다양화 및 홈쇼핑 특화 컨설팅 연계로 기업별 맞춤형 성장 지원

<표 3-3> 사업 고도화 내용

구분	2018년	▶ 2019년
사업 참여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방송횟수 확대	기업당 1~2회	▶ 기업당 8회
홈쇼핑 특화 컨설팅 연계	연계 無	▶ 연계 有

파급효과

- 거점매장 발굴·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및 사회적경제와 시민 간 점점 마련으로 사회적경제 체감도 제고
- 사회적경제 이해도가 높은 생협, 사회적가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홈쇼핑 등 사회적경제 판로로 적합한 채널 중심의 사업 집중 추진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표 3-4> 민간판로 지원사업 효과

사업	2017	2018	2019
거점매장 발굴· 활성화(거점매장 수)	-	1개 거점매장 운영 매출 136,350천 원	2개 거점매장 운영 매출 1,266,631천 원
생협매장 판로지원 (상시 판매장 수)	14개 판매장 운영 매출 77,220천 원	29개 판매장 운영 매출 193,770천 원	31개 판매장 운영 매출 272,663천 원
홈쇼핑 입점지원 (입점기업 수)	-	4개 기업 매출 33,065천 원	10개 기업 매출 104,200천 원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이 견실하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별 성장 단계와 규모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경영, 기술, 인사노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기업 성정과 도약을 목적으로 특화된 주제의 심화 워크숍과 연계한 특화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에 대한 기업의 내재화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컨설팅 실행 지원
- 지속적인 컨설팅 품질관리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컨설팅 만족도 제고

일상경영지원 및 외부자원연계

- 창업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계 실무 및 법률지원 등 일상경영지원
-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자생적 지원체계 확대

파급효과

- 기초 경영시스템 구축, 자원개발 및 자본조달 연계,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과 지속적 성장 모델 구축, 마케팅 전략수립 및 사업전략 수립, 신규 모델 개발을 통한 수익성 증대 등 기업의 사업역량 및 연차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라 성장잠재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자원개발을 위한 연계지원, 영업 및 판로개척, 수익모델 발굴 및 사업 기반 조성 지원과 내부역량 강화(재무, 회계 등), 고객관리·시장조사 등 지원, 성장성 토대 마련, 신규 모델 개발 등 수익기반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 경영 토대 마련

<표 3-5> 경영지원 사업 성과

(단위: 건)

사업	2017	2018	2019
컨설팅 지원	-경영멘토링(74) -경영전략/사업개발컨설팅(38)	-경영멘토링(46) -경영전략/사업개발컨설팅(50)	-경영멘토링(48) -심화컨설팅(52)
일상 경영지원	-회계지원(152) -법률자문(56) -외부자원연계(36)	-회계지원(143) -법률자문(40) -외부자원연계(19)	-회계지원(51) -외부자원연계(16)

*예산 조정(감액)으로 회계지원사업은 19년 4월, 법률자문사업은 18년 12월 각각 종료.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현황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2017-2019)

-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은 아래 <표 3-6>와 같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혁신형 사업임.
- 인건비의 경우 2019년 기준 총 140억 원을 사회적기업 167개, 331명에게 지원되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167개, 224명에게 지원되었음.
- 사회보험료 지원은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지원사업으로 2019년 기준 89개 기업 1,106명에게 지원되었음.
- 사업개발비¹⁾를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9년에는 사회적기업(130개) 뿐만 아닌 사회적협동조합(3개), 마을기업 등으로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 혁신형 사업²⁾ 지원 예산은 전체 감소추세이며, 2019년에 17개의 사회적기업에 지원하였음.

<표 3-6>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	2017	2018	2019
합계	12,658	11,908	14,485
인건비	8,389	7,621	8,815
사회보험료	1,369	1,254	2,008
사업개발비	2,084	2,400	3,000
혁신형사업	816	633	662

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주요통계(2019)

마을기업 지원 현황

-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현황은 <표 3-7>와 같으며, 지원액은 2019년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마을기업 사업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함. 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해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이 불가함.

<표 3-7> 마을기업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건)

선정연도	국시비(구비별도)	지원건수		
		계	신규 지원	연장 지원
2017년	450(150)	16	9	7
2018년	406(145)	15	9	6
2019년 9월	442(147)	21	11	10

1)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비용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업 당 5천만 원~1억 원 규모로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음.

2) 혁신형사업: 사회문제해결 혁신사업,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천만 원~1억 원 이내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주요 성과

3) 교류확산

홍보 지원

개요

- 서울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 홍보 콘텐츠, 전략 캠페인 등을 통해 확산하여 서울시정과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 간 이해와 소통의 기반 마련
-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계획'에 기반해 사회적경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 홍보, 사회적경제를 통한 주체적 시민생활 방식의 변화 유도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한 전략 캠페인 전개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 운영

-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sehub.net)' 운영 통해 관련 사업 공고, 교육 구인 정보, 행사 및 이벤트, 유관 자료 등 광범위한 정보를 시민,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기관, 공무원 등에 제공
- 포털 정보는 카테고리별로 2차 가공 송출하여 SNS채널, 뉴스레터 등을 통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며,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홍보 채널을 통해 재개시되는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대표적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

뉴스레터 홍보 콘텐츠 제작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이슈, 우수기업 및 상품 서비스, 지역 소식 등의 발굴 확산을 목적으로 한 기사 형식의 온라인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 공무원 등 약 10,000여 명에게 발송(연 20회 이내)
- 서울시 사회적경제 대표 홍보매체로서 다양한 언론매체는 물론 포털사이트 공익섹션 등을 통해 재확산되고 있으며, 대상별 채널별 특성에 맞춰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방식으로 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2차 가공 및 확산

전략 캠페인 추진

- 언론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 사례 및 성과, 생애주기별 제품 서비스 등을 안내해 시민 인지도를 확대하고, 영상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따라 사회적경제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 참여도 제고(연 2~3회)
- 시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한 '사회적경제 정책대화' 및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계획'을 발표한 '비전선포식' 등 관계자 간 이해와 결속의 장은 물론, 사회적경제 업종별 분야별 심화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 현장 조직, 시민이 우수사례를 상호 학습 교류하는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등 시민참여 행사 수시 개최

일상홍보

- 사회적경제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소책자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국내외 기관,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방문, 사회적경제 교육 연수 요청에 대응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우수사례 확산 및 교류 협력
- 협동허브(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 내 유관 조직 홍보물 및 구인 교육 정보물 비치, 홍보영상 상영 등을 통해 관계자 및 시민 유입률 제고

파급효과

- 서울 사회적경제 허브로서의 자체 홍보채널은 물론, 유관 매체와 지속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이를 통해 서울 사회적경제 선도 사례를 대내외로 전파
- 서울 사회적경제 2.0 계획에 부응하는 '시민생활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뉴미디어 콘텐츠 비중 강화, 세대별 맞춤 전략 등 세분화 고도화된 홍보 채널 운영을 통해 신규 대상 지속 확대

<표 3-8> 홍보지원 사업 성과

(단위: 회)

사업	2017	2018	2019
포털 운영	1	1	1
홍보 콘텐츠 제작	21	21	20
전략 캠페인 추진	3	2	2



2019 비전선포식



기획보도

해외 연계 지원

해외기관과 협력을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해외 전문기관과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서울 사회적경제 적용 방안 모색
- 스프레드아이(Spread I)와 영국 사회적경제 선진 사례와 2019년 전략 이슈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음.
- 씨티즈(C.I.T.I.E.S.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지식 전수를 위한 국제교류센터)와는 퀘벡의 선진 사회적 금융, 규모화 및 커먼즈, 커뮤니티 케어 및 효과적인 지식이전 및 보급 방법론 연구와 심화 워크숍을 추진함.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lobal Social Economy Forum) 참여 협력

- 센터의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GSEF 운영위원회 멤버이자 민간의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우수 사례 공유 및 국제 협력을 위해 상시협력하고 있음.
- 2018년 빌바오 총회에 참석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 공유와 국제적인 경험 및 사례를 통한 교류, 도시/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지역밀착형/시민체감형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함.
- 2017년 GSEF 총회와 GSEF 아시아정책대회 참여하고 그 외에 GSEF가 UNRISD에 발주한 연구 프로젝트 및 2017 제 8차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현장 탐방 프로그램 등의 기획 운영 및 참여

해외연수 지원사업 기획 운영

-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과 및 우수성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교류 기회의 확대와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 및 사례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회 마련
- 전략기획연수는 서울 사회적경제 성과확산 및 해외 선진 정책사례 발굴 연계를 통한 지원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자체 기획운영하며, 기술연수는 공모를 통한 파견과 직접 기획을 통한 전문가 초청 방식으로 진행하여 참여 기업들에 사업개발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기관 협력 및 해외조사, 전문 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업종/부문의 역량 강화 기반 마련

<표 3-9> 해외연수 연계 성과

구분	2017	2018	2019
전략기획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독일, 네덜란드, 영국) 아시아(중국), 중남미(페루, 쿠바), 북미(캐나다) 지역 의 연수지원 및 전문가 초청연수 · GSEF 2018 연계 스페인-프랑스 사회적경제 정책 사례 탐방 · 일본 오사카 지역관리형 사회적경제 운영사례 탐방
기술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 일본 협동조합의 주민 참여형 노인돌봄시설 운영방안 벤치마킹, · 파견: - 일본 치유농업 등 원예사업, - 태국 공예창작자 해외진출 및 협력 플랫폼 사례 조사, - 미국 비영리 모금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 적 용방안 도출을 위한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 일본 협동조합의 주민 참여형 노인돌봄시설 운영방안 벤치마킹, - 영국 에너지전문복합물 모델 사례 탐방 - 미 대안적 교육/보육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 혁신 모델 개발을 위한 스페인, 일본 전문가 초청 - 취약계층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및 사회주택 운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 - 한국-인도 국제협력 기술전수 - 보건의료/지식전수/ 청소년교육



사회적경제 이슈 공유 콜로키움 기획 운영

- 사회적경제 업종별 전략 분야별 심화 이슈를 주제로 우수 사례 상호 학습 및 교류를 진행하는 토론회, 간담회, 강연회 형태의 행사로서 전문가, 현장 조직, 시민들이 참석하는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을 2013년부터 운영
 -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 플랫폼경제 등 사회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기업 등록제, 창업 중심 정책 등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 전개

<표 3-10>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성과

구분	2017	2018	2019
주제	<p>이탈리아 사회적경제 현황, 공정무역, 노동,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재해 후 지역 커뮤니티 회복</p>	<p>사회적 금융, 통합 보육, 노동자협동조합, 윤리적 패션, 플랫폼 협동주의</p>	<p>프랑스 공익협동조합, 사회주의 경제체제 국가의 사회적경제 역할과 성과, 영국/스페인 사례를 통한 도시 커먼스 활성화</p>
해외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르지오 피움(WFTO 유럽 지부 의장) - 로베르토 메글리오(ILO 지역개발 및 사회적경제 선임 전문관), 지안루카 살바토리(Euricse 대표) - 타니카 나츠코(스루본카대학 사회학과 교수), 후지이 아츠시(릿쿄대학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르나르 은두르(MCE Conseils 컨설턴트), 피에르 샤렛(RISQ 선임 금융 애널리스트), 필립 가랑뜨 (RISQ 대표이사), 마틴 반 덴 보르(CITIES 상임이사) - 이나바 타카시 이사장 외 사회복지법인 로교칸 관계자 8명, 성애원 시설 운영 관계자 4명 - 세바스티안 폴(벨기에 SMART 혁신 담당), 엔조 페치니(정치학 박사, 이탈리아 협동조합 전문가) - 자클린 바터(MADE-BY 프로그램 매니저 겸 컨설턴트), 다니엘 반더스(아룬햄 패션지구 프로젝트 매니저, 패션 어드바이저) - 트레버 솔츠(뉴욕 뉴스쿨 문화 미디어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릭 비데(프랑스 르망대 교수) - 소냐 노브코빅(캐나다 세인트메리대 교수), 라파엘 베탕쿠르(쿠바 산 제로니모 유니버시티 칼리지 도시경제학과 교수), 저우 리(중국 인민대 농업경제학부 교수) - 마요 푸스테르(스페인 카탈루냐 개방대학교 교수), 피에르 뷔숑(魁北克주 경제혁신부 이코노미스트), 세실 베르지에(몬트리올시청 사회혁신개발 담당관)

정책 벤치마킹 및 사례 공유를 위한 해외 기관 일상 교류

-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해외 기관, 연구자의 방문 요청에 상시 대응
방문 목적은 주로 서울시 정책 및 센터 사업 벤치마킹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함이며, 이를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우수 사례 확산의 계기로 활용함
특히, 2017년 EU컨설턴트 방문은 OECD와 EU가 우리나라와 인도, 브라질, 미국, 멕시코, 캐나다 6개국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사회연대경제 프로그램의 공식 출범 참여 제안으로 이어졌으며, 2018년 CAPS(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연구팀의 방문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파키스탄, 태국, 중국, 인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시아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성과를 소개하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기업 지원 및 임팩트 투자 가이드로 사용될 수 있게 공개된 바 있음.

파급효과

- 다양한 국제 사회적경제/사회혁신 포럼에 참석하여 서울 사회적경제 정책 및 우수 사례 확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선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각종 협력 프로젝트 참여 계기 마련
영국, 캐나다 등 선진 사례의 조사, 분석 및 심화 탐방을 통해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의 적용 모델을 개발 함으로써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설계 마련
개별 사회적경제 기업의 벤치마킹 및 사례조사 및 돌봄, 교육 등 서울 사회적경제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 마련, 특히 저개발국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을 위한 노하우 및 업종 특화 기술 전수를 통해 새로운 국제교류 모델 마련 및 공통의 지속가능성 제고

<표 3-11> 사회적경제 해외협력 및 연수 교류 성과

사업	2017	2018	2019
해외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T.I.E.S. '퀘벡 사회적 금융 모델 사례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프로젝트 진행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T.I.E.S. 지식이전방법론, 캐나다 퀘벡 헬스협동 조합 사례 연구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read I 영국 사회적경제 2019년 전략 이슈와 사례 연구 1건 C.I.T.I.E.S. 사회적경제 규모화/공유경제·커먼즈 촉진 전략 연구 1건
GSEF 참여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GSEF 아시아정책대화 1회 제8차 ILO사회연대 경제 아카데미 현장탐방 프로그램 기획운영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GSEF 2018 빌바오 총회 참석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례 발표 1회 UNRISD 연구 프로젝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GSEF 2020 홍보 및 공정무역 업종 참여 전략 모색을 위한 연수 지원 UN사회적경제 TF(UNTFSS) 국제 컨퍼런스 공동 참석 및 사례 발표
해외연수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연수: 3개팀, 15명 기술연수: 9개팀 4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연수: 2개팀 19명 기술연수: 5개팀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연수: 7개팀 37명 기술연수: 5개팀 19명
콜로키움기획 운영	총 4회 250명	총 5회 253명	총 4회 340명
기관방문	8개 기관 105명	7개 기관 114명	8개 기관 104명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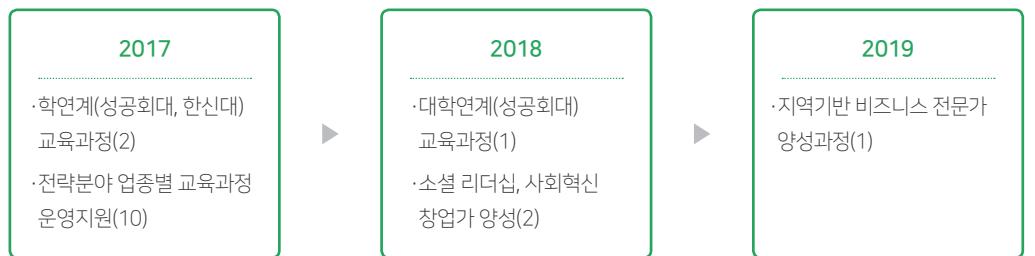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현장성 강화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및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함
-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2.0과 중앙부처 차원의 인재양성 계획 수립 및 강화 추세에 발맞춰 전략분야 전문가 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기획 개발

전문심화과정

- 대학, 정책, 전략분야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기획개발 및 운영
- 현장 진단을 통한 과정 설계 및 맞춤형 지원을 펼쳤으며, 현장 적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액션러닝, 모의창업 등 학습방법의 다양성을 꾀하였으며, 수강생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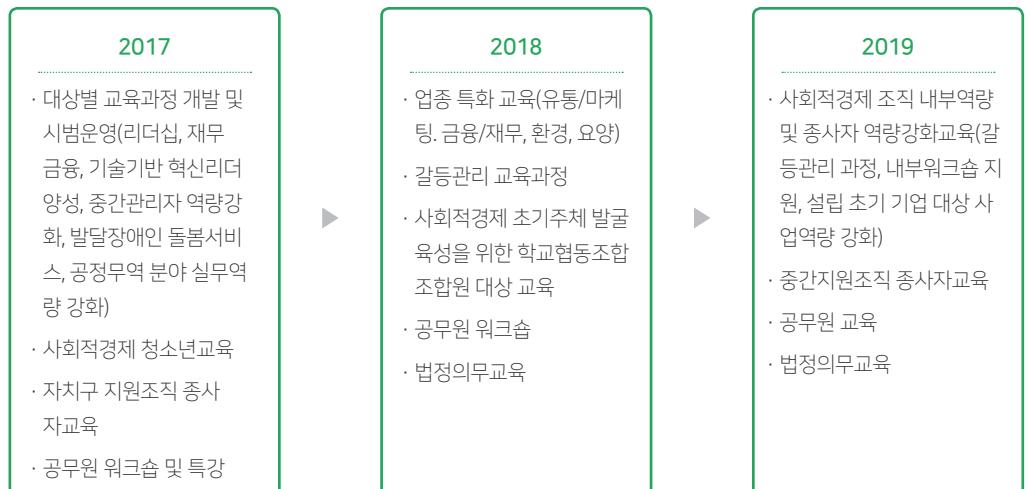
<그림 3-1> 대학연계 교육 성과



업종/대상별 교육과정 개발

- 사회적경제 종사자(중간관리자, 예비리더, CEO 등),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정책 실행자, 청소년 등 연령별 주체 등 대상별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통/마케팅, 금융/재무, 환경, 어르신 돌봄, 발달장애인 돌봄, 공정무역 등 업종별 특화 교육과정 기획 운영
- 2018년부터는 기업과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도덕성 제고 및 윤리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교육으로서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 장애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의 집합교육으로 진행함으로써 소규모 조직의 개별 진행 부담 완화

<그림 3-2> 업종 및 대상별 교육과정



파급효과

- 대학 연계 과정은 향후 정식 학위과정 신설의 기틀을 제공
- 사회적경제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교육을 확산하여 기업의 내부역량 강화 및 기업의 자립성, 사업의 안정성 제고
-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공무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기반 조성
- 법정의무교육, 신규직원OJT 등 공통적인 기업 수요에 대응한 기본교육을 진행하여 개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반영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
- 정책환경 및 현장의 신규 수요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함.

<표 3-12> 인재양성 교육 지원 성과

사업	2017	2018	2019
전문심화과정 개발 운영	12개 과정, 1,183명 수강	3개 과정, 127명 수강	1개 과정, 17명 수강
업종/대상별 교육과정 개발 운영	18개 과정, 1,455명 수강	8개 과정, 1,064명 수강	6개 과정, 593명 수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www.sehub.net

비매품/무료

13060



9 791197 014963
ISBN 979-11-9701496-3